과거에서 만난 동아시아의 미래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2

EAI
동아시아연구원

과 거 에 서 만 난 동 아 시 아 의 미 래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EAI
동아시아연구원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2
과거에서 만난 동아시아의 미래

편저자 | 하영선
편집 | 최수이, 신이수, 김수민
디자인 | 신영환, 박현성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화 | 02-2277-1683 (대표)
팩스 | 02-2277-1684
홈페이지 | www.eai.or.kr
등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9-11-87558-08-8 05300

비매품

목차

답사일정표 004

토마스 글로버를 찾아서 떠나는 답사여행 _글로버 가든 ❶ 최은정 007

데지마, 열림과 닫힘의 경계를 묻다 _데지마 ❷ 조문희 029

잊혀진 나가사키의 한국인 피폭자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❸ 우희원 059

한국인이 모르는 한일교류박물관 _한일교류박물관 ❹ 박선나 081

사세보 기지에서 바라본 태평양의 미래 _사세보 미군기지 ❺ 김명정 성시리 105

도자기, 뱃길을 따라 문명을 여행하다 _아리타 도자기 마을 ❻ 김유정 121

시모노세키에서 이홍장을 만나다 _일청강화기념관 I ❼ 임성우 147

무츠 무네미츠 외교의 신화와 현실 _ 일청강화기념관 II ❽ 황은지 167

동아시아의 진정한 공진을 꿈꾸며 _규슈 국립박물관 ❾ 박소영 195

부록 209

답사 일정표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10:30	도착
10:40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글로버 가든 / 최은정★
15:10 - 16:30	데지마 / 조문희★
17:00 - 18:30	원폭 자료관 / 우희원★
19:00-20:00	저녁식사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09:00 -10:30	한일교류박물관/ 박선나★
10:30 -14:00	점심식사 및 이동
14:00 - 15:30	사세보 미군기지/ 김명정·성시리★
16:00 - 17:00	아리타 도자기 박물관/ 김유정★
17:00 -17:30	이삼평 기념비
17:30 -18:30	이마리 도자기 거리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10:00 -11:30	일청강화기념관/ 임성우, 황은지★
12:50 -14:30	점심식사 및 이동
14:30 -15:30	규슈국립박물관 / 강현민★
19:20 -	출국

EAI사랑방

2013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1 장

토마스 글로버를 찾아서 떠나는 답사여행
_글로버 가든

최은정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시작하며

일본 남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인 나가사키는 일본의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테마 공원이자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인 글로버 가든은 세계 2 차 대전 중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피해를 입지 않은 덕분에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서양 건축 양식의 저택을 간직하고 있으며, 매년 2 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The Scotsman 2005). 그러나 이 곳을 찾아오는 방문객 중 몇 명이나 이 저택의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0 년〈국제 관광 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에 실린 글로버 가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글로버'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응답자가 51.3%로 글로버 가든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를 안다고 대답했던 응답자의 상당수 역시 그를 사업가로 기억하거나 나비부인과 관련된

인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Nash et al. 2010, 366-368). 방문객들을 맞는 정원의 주인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통계자료일 것입니다.

이번 사랑방 5 기의 답사는 바로 이 잊혀진 주인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메이지 유신 전후의 일본을 경험한 토마스 글로버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방면의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내려 글로버 가든으로 약 2 시간 정도 이동한 이후 사랑방 5 기 답사팀은 첫 답사지에서 글로버가 일본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나가사키 항구를 시작으로 나비부인 동상이 있는 글로버 정원과 저택을 둘러보면서 잊혀졌던 토마스 글로버의 자취를 찾아보고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글로버 가든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글로버 가든이 표시된 개찰구 근처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면 예상 외로 상당히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버 가든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는 토마스 글로버가 살았던 저택과 근처 정원뿐만 아니라 개항 이후 나가사키 시에 지어진 건축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인 미쓰비시 제 2 도크하우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오른편에 위치한 미쓰비시 제 2 도크 하우스를 지나 맞은 편 난간으로 가면 나가사키 항구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항구는 개항 이후 일본과 외국 열강들 간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으로 토마스 글로버와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글로버는 나가사키 개항 직후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당시 나가사키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 거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Mckay 1993, 18-19).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까지 갖춘 이 도시는 일본에서 막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던 글로버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곳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가사키 항과 글로버

나가사키 항과 토마스 글로버의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일본의 개항 이후 나가사키를 근거지로 삼아 사업을 벌였던 글로버의 삶은 나가사키 항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9 세기 당시 나가사키 항에서 활동했던 무역업자이자 무기 밀매업자였던 글로버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현재 나가사키 항의 모습

글로버는 1859 년 9 월 19 일 이화양행(Jardine, Matheson & Co.)을 경영하고 있었던 맥킨지(Kenneth Ross Mackenzie)와 동업하면서 나가사키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1861 년, 맥킨지가 다른 곳으로 떠나자 글로버는 그가 맡았던 이화양행을 비롯해 여러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차 · 면 · 석탄 등과 같은 다양한 물품을 거래 하였습니다(Sugiyama 1984, 116-118).

그러나 당시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로 나가사키항 교역량이 타격을 입게 되고, 무역과 무기 밀매에 무게를 둔 글로벌의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마스 글로버의 무역, 무기밀매 사업의 흥망성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집권 세력과 반집권 세력 간의 경쟁으로 인해 나가사키 항에서의 무기 수입이 증가된 시기, 그 다음은 무기거래제한조치로 인해 나가사키 항에서의 무기 수입이 금지된 시기, 마지막은 집권 세력과 반집권 세력 간 전쟁 종결 이후로, 나가사키 외의 항구들이 추가적으로 개항한 시기입니다.

먼저, 글로버가 나가사키 항에 정착할 당시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로, 집권 세력인 막부와 이에 저항하는 사쓰마 번(현재 가고시마 현), 조슈 번(현재 야마구치 현)과 같은 반막부 세력이 충돌하던 때였습니다. 이 두 세력은 나가사키 항에서 경쟁적으로 외국의 선박, 무기, 탄약을 수입하는 데 힘썼고, 글로버는 양측의 수요에 맞추어 외국에서 수입한 서양 무기와 선박을 판매하면서 메이지 유신 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큰 돈을 벌었고 이 자금을 동원해 무기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흥성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1866 년 이후 경쟁적으로 무기를 사들이던 막부 세력은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선박 수입을 줄여 나갔고, 1868 년 무기거래제한조치를 내려 모든 세력의 외국 선박 수입을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막부 세력의 정책적 변화와 이로 인해 나가사키항의 선박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글로버의 무기 · 선박 수입사업은 큰 타격을 받아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Sugiyama 1984, 119-123).

무기거래제한조치 이후 글로버의 무기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 막부 세력과 반막부 세력 간 전쟁이 치뤄진 이후에는 글로버의 무역업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쟁의 종결된 이후 효고, 오사카 등이 추가적으로 개항을 하면서 나가사키항의 무역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버의 무역업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1870 년,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Sugiyama 1984, 131-131).

나가사키에서의 사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글로버는 전쟁 이후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된 반막부 세력과의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메이지 유신 이전 시기의 나가사키 항은 글로버와 반막부 세력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 추정됩니다. 반막부 세력에게 글로버와의 교역은 영국의 군장비와 첨단 기술을 수입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글로버의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교역은 반막부파와 막부파의 충돌을 이용한 무기 밀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글로버는 막부 세력과 반막부 세력의 충돌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이어진 개항장의 증가로 나가사키 항의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사업의 쇠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이 파산에 직면한 이후 그는 나가사키에서 도쿄로 이동하여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과 결탁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버 정원과 오페라 <나비부인>

나가사키 항구의 전경을 돌아본 후 계단을 걸어 내려와 오른편을 내다보면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동상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동상의 주인공이 오페라 <나비부인>의 여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소프라노 미우라 타마키 입니다. 그녀는 오페라 <나비부인>의 원작 소설가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뒤 극 중 여자 주인공인 초초상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어 일본 내에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Gardiner 2008, 176-177).

▲ 오페라 〈나비부인〉의 주인공 동상과 푸치니 얼굴이 새겨진 동판

일본인 게이샤 출신의 나비부인이 백인 아내를 얻은 미국인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내용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원작은 글로버의 스캔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버 역시 극 중 미국인 남편처럼 여러 명의 여자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게이샤였던 카가 마키에게서 낳은 아들 토미 사부로를 데려와서 그의 정실인 츠루와 함께 키웠다는 점에서는 오페라 <나비부인>은 글로버의 실제 이야기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페라 <나비부인>이 글로버의 개인사와 가정사를 정확하게 그려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나비부인의 원작으로 알려진 존 루터 롱(C.S.Long)의 소설은 그의 누이 사라(Sarah Jane Correll)가 들은 글로버의 스캔들을 각색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녀가 엿들은 내용은 글로버의 사생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진실과 거짓이 섞인 채 나가사키 내에서 떠도는 소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설 원작자인 롱 역시 소설을 집필하면서 나가사키에서의 경험을 담은 피에르 로티(Pierre Loti) 의 《국화부인》(Madame Chrysanthememe) 이라는 작품의 상세한 부분들을 차용하였기 때문입니다(Gardiner 2008, 173-174). 또한 토미 사부로의 친모인 카가 마키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글로버가 일본을 떠나지 않고 아내 츠루가 사망하기 전 까지 그녀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았다는 사실 역시 오페라의 내용과는 매우 다릅니다(Gardiner 2008, 171-173).

정리하자면, 오페라 <나비부인>은 글로버의 실화에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 당시의 여러 소문이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버의 개인적인 스캔들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학적 판타지와 결합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현재에도 오페라 무대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글로버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페라 <나비부인>의 동상을 거쳐 맞은 편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아진 글로버 저택의 정원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버 가든의 규모가 상당히 넓고 내부에 여러 건물이 많이 자리잡고 있어 나비부인 동상을 감상한 이후 글로버 저택을 찾느라 헤맸는데 저택에 막상 도착해보니 동상 바로 맞은 편에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상, 무기 밀매상으로서 나가사키 항구의 흥망성쇠에 따라 사업의 부흥과 쇠퇴를 경험한 글로버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글로버 저택 내부로 들어가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끼친 사업가이자 준 외교관이었던 글로버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 글로버 저택 내부, 글로버와 그의 아내 츠루의 사진

글로버 저택의 숨겨진 방

글로버 저택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재, 주방 등을 거쳐 길게 이어지는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복도 근처에 위치한 특이한 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도 천장에 있는 숨겨진 방입니다. 이 방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 글로버 저택 내부, 창문이 없는 숨겨진 방

글로버는 막부 말기에 반막부 세력이었던 사쓰마 번과 조슈 번에 가세하면서 그들에게 대량의 무기를 팔았고 사쓰마 번, 조슈 번의 학생들을 영국으로 밀항시켰으며, 그들을 집권세력인 막부세력으로부터 숨겨주었습니다(Mckay 1993, 72-73).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방에서 조슈 번과 사쓰마 번의 대표적인 반막부 세력 지도자들이 드나들었고 집권세력의 감시를 피해 밀담을 나누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숨겨진 방을 통해 글로버가 반막부 세력과 맺은 긴밀한 관계와 더불어 그가 영국과 일본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글로버와 반막부 세력과의 인연

사쓰마 번과 조슈 번은 대표적인 반막부 세력으로, 사쓰마 번은 1863 년 영국이 단행한 가고시마 폭격을 통해 서양 군사력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면서 양이정책에서 개방정책, 친영국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영국 측에 군함 구입 알선을 의뢰하여 글로버 상회에 다량의 무기를 주문하게 되었고, 글로버 역시 교역을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해 사쓰마 번의 군비 확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杉浦裕子 2012, 236).

1860 년대 중반에는 사쓰마 번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고다이 토모아츠가 글로버의 집에 머물면서 사쓰마 번의 학생들을 유럽으로 유학 보내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버 역시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결국 18 명의 사쓰마 번 학생들이 1866 년 유럽유학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Sugiyama 1984, 123-124).

한편, 1863 년 영국이 단행한 가고시마 폭격은 조슈 번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일본은 영국이 사용한 파괴적인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조슈 번은 영국이 가진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조슈 5 인을 다룬 런던대학교의 자료(UCL Museums and collections)에 따르면, 조슈 번을 대표하는 다섯 명의 지사들(이토 히로부미, 카오루 이노우에, 킨스케 엔도, 요조 야마오, 이노우에 마사오)은 선박 무역회사 이화양행(Jardine Matheson)의 홍콩 지사장 케스윅(Willian Keswick)을 은밀히 만나서 밀항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약 135 일 간의 힘겹고 긴 항해 끝에 그들은 런던에 도착하여 이화양행 사장인 매더슨(Hugh Matheson)의 도움으로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의 화학 교수이자 런던 과학협회 교수인 윌리암슨(Alexander Williamson)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슈 5 인의 공부를 감독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木村幸比古 2015).

이렇게 런던에서 지내는 동안 조슈 5 인은 서구 열강의 뛰어난 여러 면모를 보고 반막부 세력이 주장하였던 양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쓰마와 조슈 번이 양이론을 철회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나아가 혁명 이후에 일본이 서구 열강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발단이 되었습니다.

조슈 5 인이 영국 유학 길에 오른 과정에서 글로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Gardiner 2008, 66). 그러나 그 전부터 조슈 5 인이 막부세력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총과 군함을 글로버에게 구입했다는 점에서 조슈 번과 글로버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Mckay 1993, 68).

조슈 5 인은 영국의 무기를 포함한 선진 문물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글로버의 역할이 필요했던 한편, 글로버는 일본 내에 떠오르는 신흥 세력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조슈 5 인과의 만남은 글로버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슈 5 인이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주요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UCL 2013) 그의 투자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버는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그들과 결탁하면서 미쓰비시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그 결과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투자는 개인적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 문물을 배워 온 반막부 세력은 집권세력으로 자리매김하여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Gardiner 2008, 116).

2) 준 외교관 역할을 한 글로버

스코틀랜드의 김나지움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았던 글로버는(杉浦裕子 2012, 232-233) 성공적인 무기 밀매사업을 통해 영국과 일본을 잇는 "준 외교관"(Gardiner 2008)으로도 활동하여 양국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버의 외교적인 역량이 돋보였던 대표적인 사건은 글로버 스스로가 1910 년 인터뷰에서 "가장 잘했던 일"(Gardiner 2008)이라고 회상하였던 사건으로 1866 년, 영국 파크스(Parkes, Harry Smith) 공사의 사쓰마 번 방문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를 보필하는 동안 글로버는 사쓰마 번과 영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으며 실제로 당시 그는 파크스 공사에게 "일본의 미래는 남부 다이묘들에게 달려있다"(Gardiner 2008, 63-65)고 주장하는 등 사쓰마 번과 막부와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시점에서 사쓰마 번과 영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파크스 공사는 사쓰마 번이 막부가 단독으로 무역을 독점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더 이상 양이론을 따르지 않고 외국과 자유무역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영국이 반막부 세력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 기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일본 전문가이자 통역관인 사토(Ernest Mason Satow)가 사이고 다카모리 등과 회담을 가졌고, 회담에서 그는 반막부 세력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국 수상도 그의 조언을 따라 반막부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杉浦裕子 2012, 238).

▲ 사쓰마 번주가 토마스 글로버에게 선물로 준 300 년된 소철나무

이외에도 글로버는 '친일본파 로비스트'(Gardiner 2008)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정치가 찰스 스펜서 경(Lord Spencer)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끈질긴 설득을 통해 스펜서 경이 영일동맹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찰스 스펜서 경은 영국 의회 내에서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영국, 일본 양국 간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Gardiner 2008, 161). 결과적으로 1902 년 영일동맹이 성사되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버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고, 일본에서 사업가로서 성공하면서 토마스 글로버는 두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두 나라를 연결시켰으며, 나아가 양국의 정책과 미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상과 기린 맥주

숨겨진 방을 지나 글로버 저택의 온실 쪽으로 가다 보면 석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석상을 통해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요코하마에서 여러 회사의 고문으로 지내면서 경제적 여유를 누렸던 글로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내 무기 밀매업은 파산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집권세력이 된 반막부 세력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버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885 년, 요코하마에 정착한 글로버는 이미 문을 닫은 작은 양조회사(Spring Barley Brewery)를 사들여 일본 맥주회사(Japan Brewery Company)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맥주 시장에서 팔리는 맥주 대부분이 외국산 맥주임을 간파한 후 그는 회사를 보다 큰 규모로 운영하고, 당시 수입되는 양만큼의 맥주를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정비한 이후, 그는 기린이라는 이름의 라거 맥주를 일본 시장에 판매하였고, 이후 1906 년 이 회사를 미쓰비시 사에 매각하면서 3000 엔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McKay 1993, 189-194).

그가 설립한 일본 맥주회사는 현재 기린 맥주회사의 모체라고 볼 수 있으며 현 기린 맥주 라벨의 디자인에는 아직도 글로버의 자취가 남아있습니다. 글로버 저택 내부의 기린 석상과 기린 맥주 라벨의 모양은 매우 흡사한데 이는 글로버의 딸이 일본 맥주회사의 초기 임원으로 재직하였을 때 아버지의 턱수염을 모티프로 라벨 디자인의 초안을 제작하였기 때문입니다(Gardiner 2011).

▲ 글로버 저택, 기린 석상

맺으며

나가사키 항구를 보며 개항 직후 나가사키에서 사업을 벌였던 글로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된 사랑방 5 기의 여정은, 글로버의 파란만장했던 개인사를 엿볼 수 있었던 오페라 <나비부인> 동상과 글로버 저택을 지나 메이지 유신 이후 글로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린 석상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글로버 가든 곳곳에 숨겨진 글로버의 흔적을 찾아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글로버는 일본에서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영국인으로서 무기 밀매상으로서는 일본

내 세력 간 다툼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준외교관으로서는 일본의 신 세력과 영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로버를 찾아가는 여정 내내 보존이 잘 된 글로버 저택과 정원을 둘러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만 일본 사람들이 관광지로 유명한 글로버 가든만큼 토마스 글로버라는 인물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비 오는 글로버 가든에서 발제를 마칠 때쯤 설문조사를 하러 찾아온 일본 중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글로버에 대해 물어보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어색하게 모른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니 일본 당국과 국민들이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자 일본의 격변기에 역동적인 삶을 산 인물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현재 일본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버 가든은 나가사키 시의 아름다운 볼거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글로버 가든을 보러 가는 많은 방문객들이 정원의 아름다움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19 세기 일본의 변환기에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토마스 글로버와 마주하기를 소망해봅니다. ■

참고문헌

Gardiner, Michael. 2008. *At the edge of empire: The Life of Thomas Blake Glover.* Edinburgh: Birlinn Ltd.

Gardiner, Michael. 2011. "The Scot who shaped Japan." *Japan Times*, December 11. (accessed August 13, 2015). http://www.japantimes.co.jp/life/2011/12/11/life/the-scot-who-shaped-japan/#.VXRaRh-wdMt

Mckay, Alexander. 1993. *Scottish Samurai: Life of Thomas Blake Glover.* Edinburgh: Canongate Books Ltd.

Nagasaki historic city Cooperative Group. 2015. "Glover garden." Accessed August 13. http://www.glover-garden.jp/glovergarden.html

Nash Robert et al. 2010. "An Evaluation of the Potential to Develop Inbound Japanese Tourism to Northeast Scotland Using the Thomas Blake Glover Conn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2: 360-74.

Sugiyama, Shinya. 1984. "Thomas B. Glover: A British Merchant in Japan." *Business History* 26: 115-38.

The Scotsman. 2005. "Thomas Blake Glover - Japan's favourite Scot."

February 14. (accessed August 13, 2015). https://www.scotsman.com/news/thomas-blake-glover-japan-s-favourite-scot-1-465280

UCL. 2013. “UCL celebrates 150th anniversary of Japan’s Choshu Five.” July 3. (accessed August 13, 2015). http://www.ucl.ac.uk/news/news-articles/0713/03072013-UCL-and-Japan-150-celebration#sthash.g2FjIi4H.dpuf

“Who were the Choshu 5 and the Satsuma 14?” UCL Museums and Collections. (accessed August 13, 2015). https://www.ucl.ac.uk/museums/about/japanese-pioneers/choshuandsatsuma

杉浦裕子. 2012. “幕末期における英仏の対日外交とトマス・グラバー.” <鳴門教育大学研究紀要> 27, 232-245.

木村幸比古. 2015. “斬髪し英国留学した「長州五傑」 日本近代化の原点はここにあり.” http://www.sankei.com/west/news/150322/wst1503220009-n1.html (검색일: 2015.8.13)

2 장

데지마, 열림과 닫힘의 경계를 묻다
_데지마

조문희
연세대학교

쇄국의 두 얼굴
_1653 년《하멜 표류기》와 1636 년의 데지마

글로버 가든에서 내려오는 길, 두 시간 전부터 시작된 비는 여전히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관광버스에 비치되어 있던 일회용 우산은 바닷바람의 강 펀치에 고개가 꺾이기 일쑤였습니다. 딱 붙어 떨어질 줄 모르던 사랑방 친구들도 비바람의 침범에 슬며시 멀어져 갔습니다. 바다의 낯선 표정에 섬 주변의 선박들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였다면 큰일이었겠다, 비바람이 강해질수록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지금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50년 전의 어느 날, 우리와 같은 어떤 외국인도 오늘과 같은 비바람을 마주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그가 조금 더 운이 없었다는 것. 나가사키를 향해 오던 젊은 네덜란드 청년은 바다의 변덕을 이기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표류기로

널리 알려진 청년의 이름은 바로 '하멜'(Hendrik Hamel, 1630~1692)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일본으로 보내, 동포도 만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왕은 벨테브레를 통해 '외국인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은 이 나라 관습이 아니므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며, 대신 너희들을 부양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왕은 우리더러 네덜란드식으로 춤을 추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보이도록 했다"(하멜 2003, 37).

'쇄국'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쇄국을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이 서구 및 일본의 개항 압박 속에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정책이라 규정합니다. 한편 표준적인 일본사 서술에서도 우리는 '쇄국'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이후 일본 근세의 대외정책이 쇄국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쇄국, 직역하면 '나라를 닫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19세기와 일본의 17세기를 유사한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이 이방인을 거부하고 타국과의 화해를 배척하는 태도를 동일하게 가졌다고만 본다면, 우리는 하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인용된 하멜의 짧은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방인의 괴로움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멜은 일본으로 가 이방인이 되기를 자처했죠. 그런데 그는 조선의 이방인이 아닌 일본의 이방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자비를 베풀어' 일본으로 보내달라고까지

말하니까요. 상식적으로, 만약 조선과 일본이 똑같은 쇄국의 상태였다면 하멜이 굳이 일본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은 뭐가 그리 달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멜은 동양의 낯선 땅 가운데서도 왜 조선과 일본을 구분하고 있었을까요? 1653년, 네덜란드, 그리고 나가사키. 이 셋의 관계는 당시의 세계사적 변화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2015년 사랑방 5기가 데지마(出島)를 방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가사키의 데지마, 이곳은 에도 막부가 1636년 천주교 포교를 막고자 축조한 인공 섬입니다. 이 섬은 형태부터 독특합니다. 내륙을 기준으로 펼쳐진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어 그 폭이 가장 좁은 부분과 넓은 부분 사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데지마는 시간의 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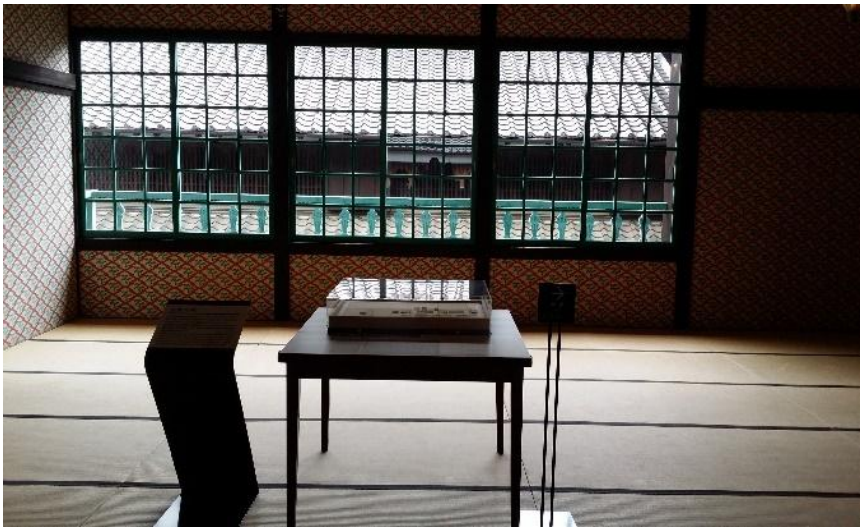
▲ 데지마 모형

속에서 과거의 흔적을 많이 잃었었지만, 2006년 1차 복원 작업이 마무리된 덕분에 다행히도 우리가 방문했던 시기에는 과거의 모습을 상당히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1636년 이전까지 일본 막부와 서양과의 교역은 포르투갈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역과 더불어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막부는 포르투갈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549년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 하비에르(Francisco de Xavier, 1506~1552)가 가고시마(鹿兒島)에 도착한 이후 기독교는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기독교로 인한 사회 불안을 경계하여 포교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선교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막부는 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지마의 축조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일만 오천 제곱미터 규모의 데지마에 포르투갈인들을 모아두었던 막부는, 그들을 몰아넣어도 불안했던 것인지, 1년 뒤 그들을 데지마에서 쫓아냅니다.

데지마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은 네덜란드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부의 쇄국정책 과정에서 1637년 규슈의 시마바라(島原) 지방에서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시마바라의 난(1637)'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막부의 위협 인식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막부는 1639년 포르투갈선의 내항을 전면 금지하였고, 대일 무역의 주역이었던 포르투갈은 일본을

떠나게 됩니다. 1641년에는 네덜란드인만이 유일하게 일본에 남게 되었고, 이내 그들은 히라도 상관(商館)에서 나가사키와 데지마로 옮겨졌습니다.



▲ 데지마 내 상관장의 방

데지마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일본인과의 교류가 금지되었고 나가사키 부교(奉行: 행정, 재판, 사무 등을 담당하는 무사의 직명)를 통해 막부의 엄밀한 감시 아래 놓여졌습니다. 일본인이 데지마에 들어가는 것도 네덜란드인이 데지마 밖에 나오는 것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고 거주 인원도 제한되었습니다. 데지마 초입의 상관장(商館長) 숙소와 맞은 편의 부교 숙소는 데지마에 대한 일본의 '관리'라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인 부교의 방에서는 오늘날 반투명 감시 유리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상관장의 방이 건너다 보이는 반면, 상관장은 부교의 방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653년의 하멜이 나가사키를 향해 네덜란드를 떠나왔던 것은 데지마를 통해 일본과 교역이 가능해진 시대상과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데지마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삼엄한 감시와 통제 하에 오직 네덜란드인과의 교역만을 허용한다는 것이 서구의 문물을 들여오되 서양의 종교를 배척하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였습니다.

일본 근세 쇄국의 독특함: 지볼트 기념비와 캠페르

데지마 건물들의 뒤편에는 하나의 비석이 있습니다.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804~1885)가 세운 기념비입니다. 오늘날 《일본지》의 저자로 잘 알려진 지볼트는 1823년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의 요청에 따라 데지마 상관 내 의사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1827년 소위 '지볼트 사건'으로 일본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그는 나가사키에 명롱당(나루타키주쿠)을 설립해 난통사, 난방의 등 난학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1826년에는 에도 참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기록은 《에도참부 기행》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지볼트가 기념비를 세운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념비는 그의 선배 캠페르(Engelbert Kaempfer, 1651~1716)와 툰베리(Carl Peter Thunberg, 1743~1828)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캠페르와 툰베리가 데지마에 들어온 것은 각각 1690년, 1776년이었는데, 지볼트가 데지마에 부임한 것이 1823년이니 이들 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셋의 방문은 명확한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캠페르가 귀국 후 작성한 《일본지》를 갖고 툰베리가 일본을 방문했던(김미정 2009, 188) 사실로 미루어보아, 선행자의 영향을 후대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툰베리의 《에도참부수행기》에 나오는 일본인에 대한 묘사는 캠페르의 《일본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 지볼트 기념비

캠페르가 일본에 체류한 기간은 1690년부터 1692년까지 2년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왔을 때는 이미 포르투갈인들이 떠나고 네덜란드인들이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캠페르는 공교로운 사정으로 체류 기간의 태반을 에도에서 지냈고, 그동안 유럽 의술의 장점을 일본 지배층에 널리 인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캠페르가 일본에 체류했던 시기 그의 영향은 의사로서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당시 캠페르는 일본보다는 유럽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가 저술한 《일본지》는 유럽에 널리 알려져 유럽인들의 일본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渡邉直樹 2015, 35). 툰베리의 일본 인식은 앞서 지적했듯 캠페르에게서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유럽 계몽주의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백과전서》에서도 일본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일본지》에 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지》가 일본에 대한 서양의 인식과 지식에 미친 영향은 '서구의 식물도감이 일본 지식인들의 영향으로 풍부해졌다'는 데지마 내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캠페르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720년까지는 서양 책의 출판 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관계로 일본 내에서 서양 지식 보급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쇼군에게 인사를 올리러 에도에 가서 해외 정세와 유럽 사정을 보고하는 일은 소위 '오란다풍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데지마의 네덜란드인들이 일본 지배층과 접촉을 가지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의사로서 캠페르의 역할이 일본으로 하여금 근대로 나아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근대 연구에서 '난학(蘭學)'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캠페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캠페르를 기념하고자 지볼트는 1800년대에 나가사키의숙을 설립했고, 그 때문에 난학 전파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기타 겐파쿠가 《타펠 아나토미아》를 번역해 《해체신서》를 발행하기까지는 네덜란드 출신 의사들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일본 근대 성립에 관한 표준적인 서술 방식은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의 무역 독점에서 난학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서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과 사료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매끄러운 서사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포르투갈인과의 교역 시기부터 근세의 일본이 서구와의 교역을 통해 문물을 받아들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쇄국의 의미가 조선의 쇄국과는 결을 달리했던 것이죠. 일본의 쇄국은 적어도 '동도서기'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 것입니다.

쇄국이라는 허구
_캠페르의 《일본지》와 시즈키 타다오의 《쇄국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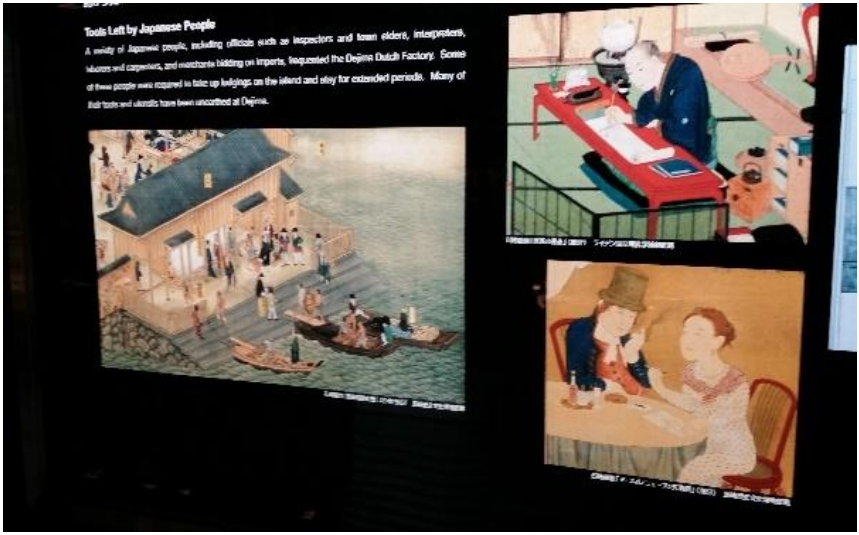
그렇다면, 서구와 '교류'를 하겠다고 인공섬까지 지은 일본의 근세를

왜 우리는 '쇄국'의 시기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쇄국'은 바로 캠페르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지》의 권말 논문은 소위 자국민의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 양자의 교역을 금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캠페르는 먼저 일본이 외국과 불필요한 교류를 피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한다고 말하며, 구약성서를 인용해 교류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논변을 진행하면서 그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지리적, 경제적, 문명적, 민족-문화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거론하며 일본의 교류 금지 정책은 당시 일본에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한경자 2012, 274).

《일본지》가 일본에서 주목 받았던 것은 시즈키 타다오가 책을 《쇄국론》이라 일역하면서부터 였습니다. 타다오는 《일본지》의 전체가 아닌 권말의 논문 하나를 번역했는데, 본디 제목은 "지금 일본국에서 나라의 문을 닫고 국내외를 불문하여 자국민이 외국인과 통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이득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입니다(배관문 2014, 274).

1801년 시즈키 타다오는 캠페르의 《일본지》 권말 논문을 번역합니다. 캠페르의 논문은 '교류 금지'에 관한 것이었으나, 쇼이히처의 영역본을 근거로 중역한 네덜란드본을 근거로 일본어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즈키 타다오는 《쇄국론》으로 논문 제목을 바꿨습니다(渡邉直樹 2015, 24). 도쿠가와 이후로부터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의 막부 통치 시기를 소위 일본의 '근세'라고 하는 바, 이 시기 일본의 대외관계는 통상 '쇄국체제'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즈키 타다오의《쇄국론》이전에는 '쇄국'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渡邉直樹 2015, 24). 구체적으로 말해, 시마바라의 난 이후 강해진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데지마로 상징되는 무역 '한정'은 1639년의 '조조' 발표로 이어져 '쇄국'의 시작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1640년대 이후에도 쇄국이라는 단어가 쓰인 적은 없다고 합니다(로널드 토비 2013, 97). '쇄국'이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시즈키 타다오의《쇄국론》번역에서부터 였습니다.



▲ 데지마 박물관 내 일본 무역 관련 자료

오히려 근세 일본의 무역은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무역 관계를 확장해 두었던 일본은 그곳에서 포르투갈과 마주했는데, 포르투갈 예수회의 방일은 이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재임기의 덴쇼 사절단은 일본의

세계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582년부터 1590년까지 8년여 동안 동남아와 인도양, 아프리카를 돌아 로마 가톨릭 교황을 알현하고 돌아온 덴쇼 사절단은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가져옵니다. 이 지도는 일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였지만, 일본인들은 동남아 교역 경험에 비추어 그 지도가 중국지도보다 정확함을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발견과 더불어 이런 '지도상의 깨달음'은 도요토미의 시야를 넓히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김명섭 2013, 111).

일본의 때 이른 '세계 인식'은 문명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구가 지중해에서 이슬람에 밀리면서 대서양을 향했던 것입니다. 한편,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과는 달리 서구가 일방적으로 대서양을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동양 역시 정화의 원정이나 일본의 동남아 무역 등으로 일종의 질서를 형성해 둔 상태였습니다(이종찬 2014, 151).

중요한 것은 다이묘나 상인들이 분산적으로 무역을 했던 중세적 무역이나, 그것을 해체하고 등장한 주인선 무역이나 모두 일본 고유의 무역 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를 일종의 '질서'로 부르는 까닭은 일본이 조선, 류큐, 에조와 교류를 맺었던 방식 때문입니다. 나가사키까지 포함해 이들은 '네 개의 창구'라고 불리는데, 토비는 나가사키가 서양과 관계했던 탓에 엄격한, 쇄국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나머지 세 지역은 동아시아 내의 교역이 이루어졌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쇄국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로널드 토비 2013, 102).

쓰시마가 조선과 외교 및 무역을 행하는 지역이었다면, 사쓰마는 류큐와 차별적 조공 무역 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마쓰마에 지역은 에조치와 선린관계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본 외교를 쇄국이었다고 보는 기존 입장의 근거는 그리스도교 선교를 금지하는 것과 막부가 이윤을 독점하는 것, 이를 위해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할 것을 쇄국정책의 목적이었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외교가 실제적으로는 '동아시아' 즉 나가사키 이외의 지역인 경우 일본이 '도항'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쇄국'의 근거는 무너지는 셈입니다. 때문에 당대 일본의 대외 교류가 '쇄국'이 아닌 '해금'이었다는 지적(로널드 토비 2013, 102)이나, '일본형 화이관념'(박훈 2008, 268)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외 인식의 변화와 '국'의 범위 _'해외웅비론'과 '쇄국론'

앞에서 말했듯, '쇄국'이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시즈키 타다오의 《쇄국론》 번역에서부터 였습니다. 영역본 《일본지》에는 'keep it shut'이란 구절(로널드 토비 2013, 101)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이 구절을 다시 시즈키 타다오가 그대로 번역해 '쇄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단순히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만이 아니라 곳곳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해제까지 더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쇄국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시즈키 타다오 자신의 서양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녹아있는 것이죠.

시즈키 타다오의 위기인식은 18세기 후반 러시아의 접근과 관련이 있습니다(大島明秀 2007, 111). 러시아가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1739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대로서 러시아는 1771년의 베뉴프스키 사건에서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러시아가 에조치에 접근하면서 막부의 경계심이 고조됐던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792년의 러시아 선박 예카테리나 호가 에조치 북동쪽 끝에 있는 현재의 네무로 앞바다에 출현한 일입니다. 예카테리나 호는 러시아에 표류해 온 일본인 다이코쿠야 고다유 이하 세 명을 일본에 송환하겠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갖고 등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고다유와 만났던 예카테리나 2세가 일본과 교역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아담 락스만을 일본에 특사로 파견하는데(로널드 토비 2013, 108), 러시아의 접근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 인식은 《쇄국론》에 “지금 러시아가 크게 나라를 확장하여 북쪽으로는 빙해에 육박하고, 서쪽으로는 보로니아, 스웨덴에 육박하고, 남쪽으로는 페르시아에 육박하고, 또한 멀리 동쪽으로 동서달탄의 땅을 합쳐 네르토신스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중국에 육박하여, 또한 우리 북방의 캄사스카에 이르러 우리에 육박하려고 하는 것은(배관문 2014, 279)”이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토비나 아키히데의 연구는 쇄국과 거리가 멀었던 에도시대의 실태를 쇄국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키히데는 《쇄국론》의 수용 형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즈키 타다오의 영향력은 '쇄국'이라는 용어를 퍼뜨린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大島明秀 2007, 117). 아래 서술하겠지만 아라이 하쿠세키와 8대 쇼군 요시무네가 은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독특한 논점을 제공합니다. 당시 일본은 무역이 활성화된 상황이었고, 일본은 쇄국이 아닌 무역을 주체적으로 이끌고자 일종의 제한과 규칙을 두고자 하는 차원의 노력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쇄국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자기규정입니다. 시즈키 타다오의 《쇄국론》 이 등장한 이후인 19세기 초반부터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바, 이는 위에 언급한 대외 '위기 의식'과 맞물려 나타난 개념입니다. 한경자는 시즈키 타다오의 해제와 1850년대 《쇄국론》을 《이인공포전》으로 발표한 구로사와 오키나와로의 발언을 근거로 '쇄국' 발언의 의도가 '야마토다마시이'(大和魂)의 진흥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즉 대외 위기감의 고조 속에서 일본 민족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는데 쇄국 주장의 의의가 있었다는 겁니다(한경자 2012, 275).

현실적 여건의 변화로 '닫아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기존 일본의 대외 인식을 고려할 때 '닫는다'는 극단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상당한 논리적 비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활발한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데 주력했던 일본에게는 '나라를 닫는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쇄국'이라는 개념의 출현은 그 자체로 독특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작 《일본지》의 저자였던 캠페르에게는 '교류 금지'의 개념만이 있었을 뿐인데, 이를 시즈키 타다오에 이르러 'shut'으로 오독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쇄국' 개념의 형성 자체가 17~8세기의 유럽적 현상과 그에 따른 사고방식에 기반해 있었고, 이것이 시즈키 타다오가 네덜란드 판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역수입'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渡邉直樹 2015, 24).

이렇게 본다면, 시즈키 타다오는 캠페르를 빌려왔지만 캠페르와는 전혀 다른 시기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평화로운 에도 겐로쿠 시대(1688~1704)에 일본에 체류했던 캠페르에게 일본은 내부에서 '국가를 잠금'으로써 외압과 국방 정책상의 위기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발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반면 시즈키 타다오는 러시아의 남하로 상징되는 유럽 제국주의 식민주의 전개를 고려해 '쇄국'을 말한 것입니다.

'쇄국'의 필요조건
_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산품 생산에 대한 관심

대외 인식이 변했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대외정책의 변화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지각되고 변화 여건이 마련됐을 때 변화는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훈은 18세기 일본 막부 중심의 경제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전국적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박훈 2014, 21).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을 증진하고자 했던 노력이 과거부터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유사한 자급자족 경제 건설 노력이 어떻게 근세 일본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나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해, 그것은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네 개의 창구' 중에서도 나가사키는 당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독특한 상대인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무역에 있어 생사, 설탕, 약종 등의 상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은과 동을 화폐나 광물자원 형태로 지불하였던 탓입니다. 당시 일본의 무역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야마구치의 인용에 따르면 17세기 초두에 일본의 은 수출액은 1년에 20만kg에 달했다 합니다(주경철 2008, 267). 이는 전 세계 은 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였다 하니 그 무역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일본은 은 유출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동-은 화폐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탓입니다. 당시 에도 막부는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은의 산출액이 한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내 화폐 수요의 증대와 해외무역 적자가 맞물리면서 17세기 말에 이르면 일본 경제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이죠.

광물자원 유출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지상과제가 됐습니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80~1716)가 주도했던 '쇼토쿠 신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쇼토쿠 신례를 통해 일본은 수입품의 양을 제한하는 것에 더하여 나가사키로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신패(信牌) 소지를 의무화해 막부가 무역을 '허가'하는 통제 방식을 제시하게 됩니다(로널드 토비 2013, 184).

그러나 이 역시도 유출의 주원인인 수입품의 수요 공급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상품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자체를 탈피하지 않고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가 곤란했던 것이죠. 이 점은 아라이 하쿠세키와 그 주군인 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 1662~1712)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요컨대 요시무네는 수입 상품을 일본 제품으로 대체하고자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토비는 요시무네가 1720년 가나자와(金澤) 번주 마에다 쓰나노리(上杉綱憲, 1663~1704)로부터 《서물유찬》을 헌상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박물학, 농학지식 습득과 체계화에 대한 요시무네의 관심을 상징합니다(로널드 토비 2013, 197). 이와 관련해 1721년 요시무네는 '양서 수입 금지'를 완화(금서해금)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시즈키 타다오는 《쇄국론》 말미에서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을 방어하고 대내적으로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 데 가장 필요한 마음을 굳건히 가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페르의 《일본지》에서 나타났던, 자급자족이 가능한 일본의 이미지는 이미 시즈키 타다오 세대 바로 직전의 요시무네로부터 현실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로 인한 대외 위기감의 고조로 한편으로는 시즈키 타다오의 《쇄국론》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토 노부히로나 혼다 도시아키 등의 ‘해외웅비론’(박훈 2008, 285)이 등장했다는 동시대성은 위기감이라는 ‘관념’차원만이 아닌 현실적 ‘토대’의 차원에서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가사키 무역이 퇴조하는 흐름 속에서 막부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에조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도 히라스케가 저술한 《아카에조 풍설고》 등의 등장은 18세기 후반 일본의 화산 폭발, 대기근 등의 자연재해와 더불어 경제위기가 심화된 속에 에조치가 막부의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즈키 타다오는 《쇄국론》에서 “에조(蝦夷) 사할린의 땅을 다시 잘 다스려 통상출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이 들이닥치려고 해도 오히려 우리 황국을 수호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가 ‘쇄’하고자 하는 ‘국’의 범주에 ‘에조’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에 막부가 ‘쇄국’상태가 아닌 조선,

류큐, 에조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쇄국 아님'이 '쇄국' 주장의 근거가 됐음을 짐작케 합니다.

달리 말하면, 조선과는 쓰시마를 통해 동등한 관계에서 무역을 한다 치더라도, 류큐와 에조의 경우는 기존의 교류 과정 속에서 이미 일본의 국가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할 수 있습니다. 시즈키 타다오가 《쇄국론》에서 "황국은 무수히 많은 섬으로써 지구의 만국에 응하기에, 이는 일국의 작은 지구나 다름없다. 이 섬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약간의 바다와 육지를 거쳐 통교·통상을 할 때는 이미 나라 안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진귀한 풍경을 즐긴다"(배관문 2014, 278)라고 말하며 일본이 국내 섬들의 통상으로도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나, "에조와 가라후토(현 사할린 섬)의 땅 또한 잘 다스려 통상 출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이 밀어닥치려 해도 어렵지 않게 우리 황국을 수호할 수 있으리라"(배관문 2014, 280)고 보는 것은 독특한 국가 범위의 인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시무네의 노력 이후 일본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시즈키 타다오는 캠페르의 책을 보며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섣불리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난학사시》가 초래한 오해를 넘어서
_지리학적 인식의 중요성

1815년, 스키타 겐파쿠가 말년에 작성한 《난학사시》는 오쓰키 겐타쿠에 따르면 겐파쿠가 난학 융성에 따라 그 창시자로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쓴 것이라 합니다. 《난학사시》는 《해체신서》의 번역 경위와 과정을 밝힌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난학의 정통성을 둘러싼 당시의 논쟁에 일종의 마침표로 작용하면서 켄파쿠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난학사시》 사진

문제는 《난학사시》에서 시즈키 타다오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난학이 에도-해부학에 편중됐기 때문이죠. 겐파쿠는

“번역한 천문과 역학에 관한 책이 한두 권 있다고 하나, 그 외의 것은 들은 바가 없다”(이종찬 2014, 63)고까지 말합니다. 사후적으로 난학을 자신의 공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스키타 겐파쿠의 왜곡은 향후 난학을 개념사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장애가 됐습니다. 난학의 발전은 박물학, 해부학에서 유래하는 시각적 근대성(타이먼 스크리치 2008, 22)과도 연관됐지만, 천문학적, 지리학적 발견과도 연관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즈키 타다오보다도 앞선 시기, 8대 쇼군 요시무네는 1716~1745년의 재임기에 일본의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맞서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특히 일본 내 인구 증가 상황은 기존의 중화적 세계관으로는 해소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 이전 7대 쇼군 시기 이탈리아 선교사인 시도티가 일본에 상륙했던 사건은 요시무네의 지리학적 상상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라이 하쿠세키가 시도티의 심문을 맡으면서 《채람이언》과 《서양기문》을 작성했던 바, 여기엔 종교적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았으나 서양의 기술에 대해서는 감탄과 동경이 자리해 있었던 것이죠(정하미 2000, 388).

독특한 것은, 일본인 통역관도 네덜란드인도 시도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시도티가 그 동안 교류가 없던 나라,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탓입니다. 그럼에도 하쿠세키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시도티의 심문에 나서는데 이는 서양 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에 더하여, 일본인으로서 하쿠세키가 네덜란드어를 사용해 시도티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정하미 2000, 302). 이후 8대 쇼군 요시무네는 하쿠세키의 인식에 힘입어, 서양 연구의 결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기독교 관련 서적을 제외한 양서의 전면 개방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요시무네가 은 유출에 맞서 자국 상품의 수출 증진을 시도하는 맥락에서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지마-나가사키에서의 교역을 통해 서양의 정보가 상당 부분 일본에 도입되어 있었던 탓이기도 합니다. 이를 지리학적 발견과 분리해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쿠세키 시기부터 이미 서양의 정보가 상당 부분 일본의 학자들에게 익숙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나가사키의 통역관 출신인 시즈키 타다오 역시 서양 사정에 정통 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즈키 타다오는 서양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정책을 이해한 상태에서 '쇄국'을 논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난학을 해부학적 지식과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대외관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위기 인식, 위기감을 돌파하려는 시도 속에 드러나지 않은 '세계 속 일본 자체의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즈키 타다오가 서양 제국주의를 인식하는 가운데, '쇄국'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데지마를 떠나며

캠페르의 1690년대는 시즈키 타다오의 1800년대와 달랐습니다. 캠페르의 권말 논문을 '쇄국'이라는 용어로 번역한 데에는 시즈키 타다오 자신의 시대 인식이 담겨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에조로 접근함에 따라 시즈키 타다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쇄국'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즈키 타다오의 쇄국 주장은 근세 무역체제가 '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네 개의 항구'를 통해 무역을 유지하면서 일본은 발전을 이룩했고, 한편으로는 은 유출로 인해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발전과 위기의 진동 속에서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인식상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 하나는 류큐와 에조를 일본의 영토 범주 속에 넣어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의 지식, 특히 난학을 통해 세계 인식을 심화해갔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모두 지리학적 충격과 연관돼 있는 바, 이들은 시즈키 타다오의 독특한 시공간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시즈키 타다오는 서양 지식의 누적 덕분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팽창과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단위로서 '일본'의 범주를 주변 도서를 포함한 것으로 독특하게 설정하는 가운데 '쇄국'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쇄국론과 일견 모순돼 보이는 '웅비론'도 공유하는 무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첫째, 난학이 해부학적 지식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일각의 견해는 그러한 인식이 지리학적 충격에서 촉발 됐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즈키 타다오의 '쇄국' 주장이 지니는 함의를 시즈키 타다오 당대의 맥락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시즈키 타다오의 《쇄국론》이 일본 근세의 활발한 무역질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비판 받아야 합니다. '쇄국 아님'의 역사가 존재했기에 변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쇄국'이라는 대응이 가능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 쇄국이 교류 금지로 인한 자극의 부재와 정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낙후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준 유럽 계몽주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으로 비판 받아야 합니다. 쇄국 개념의 형성사를 들여다볼 때, 쇄국은 정체상태가 아닌 외부와의 교류와 내부의 역동적 변화가 전제된 개념으로, 서구와는 다른 일본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쇄국론과 웅비론이 공유하는 '일본'의 영토 범주 이해는 향후 야마가타 아리토모에 의해 주창된 '이익선'과 유사한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기회가 된다면 더욱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난학은 양학으로 이어져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 시기는 일본으로 하여금 서구의 우월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서구와는

구분되는 권역으로서 동양을, 동양 내부에서도 세력권으로서 일본을 자각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익선 개념을 비롯해 동양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 했던 일본의 시도에는 '쇄국'으로 여겨졌던 시기의 활발했던 무역이 가져다 준 물적 발전과 세계관의 변동이 자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에서 조선이 일본에 지배 받고 식민지로서 크나큰 아픔을 겪어야 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조선의 '쇄국'이 일본의 '쇄국'과 비교되며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데지마로 향하던 하멜이 조선에 표류했을 때 조선은 하멜을 어떻게 대우했던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데지마 내의 박물관에는 사전, 토기 등의 물품도 있지만, 데지마에서 서양인들과 공존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취했던 노력도 나타나 있습니다. 서구인들의 육식을 위해 동물을 따로 사육했던 데지마의 공간에서 일본인들은 '공존'의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반면, 조선인들은 하멜을 그저 웃기는 이방인으로서 취급했을 뿐입니다.

교류하고 이해해야 하는 상대로 타인을 대하게 될 때 그들과 자신의 '경계'를 고민하고 다름의 '토대'를 묻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그 속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이라면, 일본과 달리 조선은 탈피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근세의 경험을 무의미하게 흘려 보냈기에, 흥선대원군에 이르러 서구와의 교역이 필요했던 시점에도 조선은 쇄국을 고집하게 됐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 일본의 쇄국이 그 이전의 무역을 통해 무르익은 경제적

토대와 세계 인식을 기반으로 삼았던 반면, 조선은 그저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옹고집으로 버텼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와의 의존이 점차 심화되는 오늘날, 데지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을 바탕으로 묻습니다. 열림과 닫힘의 적절한 방식을 고뇌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다시금 질문할 수 있을 때, 도리어 우리의 시야는 보다 탄탄한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저마다 다른 고민을 떠안은 가운데 저는 묻습니다. 일본 근세 시기 쇄국만큼 복잡한 고민을 오늘날의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데지마를 떠난 오늘까지도, 데지마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

참고문헌

김명섭. 2001.《대서양문명사》. 서울: 한길사.

김미정. 2009. “쇄국기 서양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일본관 - 캠페르, 쓴베리, 시볼트의 강호 여행기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15: 183-200.

로널드 토비. 2013. 허은주 역.《일본 근세의 ‘쇄국’이라는 외교》. 서울: 창해.

류미나. 2010. “식민사상의 선구자, 혼다 도시아키의 재발견 - 속도개업 논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0: 217-250.

박 훈. 2014.《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서울: 민음사.

_____. 2008. “18세기 말 - 19세기 초 일본에서의 ‘전국’ 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동양사학연구〉 104: 267-297.

배관문. 2014. “시즈키 다다오 역, 쇄국론.” 〈개념과 소통〉 14: 273-283.

야마구치 게이지. 2001. 김현영 역.《일본 근세의 쇄국과 개국》. 서울: 혜안.

이종찬. 2014.《난학의 세계사》. 파주: 알마.

정하미. 2001. “일본의 서양학문의 수용 - 「난학」(蘭學)의 형성과 관련하여.” 〈일본문화연구〉 4: 143-158.

_____. 2000. “일본의 서양연구 시점에 관하여 - 아라이 하쿠세키의 시도티 심문과 관련하여.” 〈민족과 문화〉 9: 387-406.

주경철. 2008. 《대항해시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타이먼 스크리치. 2008. 박경희 역. 《에도의 몸을 열다》. 서울: 그린비.

한경자. 2012. “국학자의 「쇄국론」 수용과 야마토다마시이의 재정의.” 〈일본사상〉 22: 269-290.

헨드릭 하멜. 2003. 김태진 역. 《하멜 표류기》. 서울: 서해문집.

渡邉直樹. 2015. “ケンペルの「……国を鎖している日本」論—志筑忠雄訳「鎖国論」と啓蒙主義ヨーロッパ—”, 〈宇都宮大学国際学部研究論集〉 第39号. 23-36.

大島明秀. 2007. “志筑忠雄訳『鎖国論』の誕生とその受容”〈蘭学のフロンティア 志筑忠雄の世界: 志筑忠雄没後200年記念国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 第2部〉 110-123.

3 장

잊혀진 나가사키의 한국인 피폭자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우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국인들은 나가사키(長崎)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나가사키 짬뽕? 아니면 나가사키의 명물이라는 문명당(文明堂)의 카스텔라? 네덜란드에 대해 공부하는 난학(蘭學)? 나가사키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이곳이 태평양 전쟁(1941.12.17~1945.8.15)의 막바지인 1945년 8월 9일 플루토늄 폭탄 팻맨(FatMan)에 의해 폭격 당했다는 사실을 나가사키 짬뽕이나 카스텔라 아니면 난학보다 먼저 떠올릴 한국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한, 그곳에서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상당수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들어봤거나 알고 있던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2015년 6월 25일, 이제는 잊혀진 사람들, 나가사키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사랑방 5기 답사팀이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을 찾았습니다. 과연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70년이 지난

지금 나가사키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가능할까요? 한국은 자국의 피폭자(被爆者)들을 기억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데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1945년 8월 9일 한국인 2만명이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폭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왜 당시 나가사키에 와 있었고 나가사키는 왜 원자폭탄에 의해 공격을 당해야 했을까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히로시마(廣度)에 위치한 평화기념자료관(1955년 완공)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근인 1996년도에 이르러서야 '나가사키 피폭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즉,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에 비해 원폭 피해자의 수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로시마에 비해 원폭 피해 규모 및 평화의 상징성에서 나가사키가 뒤쳐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원폭을 다루고 있는 저서들 중에는 제목에 히로시마가 들어간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어도 나가사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가 히로시마의 것에 비해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일본 대법원이 한국인 히로시마 피폭자들 중 소송을 제기한 40명(2007년도 당시 생존자는 그 중 28명)의 의료비를 일본 정부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Palmer 2012). 그 외에도

곽귀훈 씨, 손진두 씨 등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은 일찍부터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금을 지원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곽귀훈 2003). 반면 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보상 소식은 최근 들어서야 간간이 들려올 뿐 그 판결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김승남 씨와 故장영준 씨의 경우처럼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던 사례도 있었지만, 반대로 소송이 기각되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교도통신〉 2013/7/9; 〈경남신문〉 2012/9/21; 〈연합뉴스〉 2013/10/29).

나가사키 한국인 피폭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다양한 상품과 학문이 마치 나가사키의 원폭 경험과 피해를 잊게 만드는 망각의 장치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원폭에 의한 참상 및 평화의 상징성에서 나가사키가 히로시마와 동등하게 주목 받지 못한다면,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비참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5기는 나가사키 답사를 통해 원폭 피해에 관한 기억에서 히로시마에 비해 망각의 덫이 몇 겹은 더 덧씌워져 있는 이곳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잊혀진 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장애물을 넘어야만 합니다. 어려웠지만 사랑방 5기 답사팀이 나가사키에 와서 그들을 만나러 갔던 길이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 팻맨이 떨어졌습니다. 이 폭탄은 무엇이었고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히로시마에 이어 왜 이곳에 일찍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같은 해 몇 달 전 태평양 전쟁의 전황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해인 1945년 초,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비해 생산력과 기술력 등에서 분명히 뒤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입은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치러진 전투들이었습니다. 이오지마는 미국령인 마리아나 제도(Mariana Islands)와 일본 본토 중간에 위치한 섬으로, 미국은 이 섬을 함락시키기 위해 1945년 2월 19일 전쟁을 개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 26일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미군 측 피해자 28,000 여명(그 중 사망자 6,821명), 일본군 측 사망자 18,844명이 발생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제일 마지막 전쟁인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82일 간 진행되었는데 이오지마 전투, 심지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 피해자를 능가하는 피해자를 냈습니다. 그 때문에 오키나와 전투는 태평양 전쟁 중 가장 처참했던 전쟁으로 일컬어지며,

일본의 악명 높은 자살 비행기 공격인 카미카제(神風)가 활용되면서 참혹함과 비인도성은 배가 되었습니다(Nalty and Crawford 1995). 미군 측 피해자는 사망자 12,000명을 포함하여 38,000명으로 추산되며 일본군 측 피해자는 사망자 107,539명을 포함하여 142,058명에 달했고, 오키나와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 사상자도 142,05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1945년 두 전투에서 미군 피해자와 민간인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계획 중이었던 다음 작전의 예상 피해자 수도 덩달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동전쟁기획위원회(The Joint War Plans Committee)에서 제출한 보고서 "Details of the Campaign Against Japan"에 의하면 몰락 작전(Operation Downfall) 시행 시 대략 193,500명에서 220,000명의 피해자 발생이 예측되었습니다(사망: 111,000명, 부상: 425,000명, 실종: 10,000명)(MacEachin 1998).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함락 후 미군에게 남은 다음 함락 대상은 바로 일본 본토였습니다. 미군은 일본 본토를 함락시키기 위해 '몰락 작전'을 세웠습니다. 몰락 작전은 '올림픽 작전'(Operation Olympic)과 '코로넷 작전'(Operation Corone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945년 11월 1일에 개시하여 일본 남단인 규슈(九州)를 차지, 1946년 3월 1일에 개시하여 일본 본토인 혼슈(本州)의 중간지점인 간토평야(關東平野)를 확보함으로써 일본군을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이 1945년 11월 이전에 핵실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예상되는 엄청난 피해를 각오하고서라도 몰락 작전은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6일,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은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일찍이 1939년부터 미국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비밀스런 요청으로, 캐나다 및 영국과 협력하여 '맨하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라고 하는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 뉴 멕시코에 위치한 알라모고도(Alamorgodo) 공군기지에서 성공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핵폭발이었습니다. 그로브즈(Leslie R. Groves) 중장은 성공적인 핵실험을 관람하고 느낀 바를 헨리 스팀슨(Henry Stimson) 육군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And what an explosio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Groves 1945). 핵실험 성공 이후 8월 6일까지 미국 수뇌부는 핵폭탄을 투하할 장소와 날짜, 언론에 발표할 보도 자료를준비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인류 역사상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난 후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스팀슨 육군 장관은 각각 언론 발표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두 발표문 전체에 흐르는 공통된 어조나 내용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자부심과 핵무기의 위력, 핵분열 현상이 인류 문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 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발표문의 초점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팀슨의 발표문은 핵무기 개발 과정과 핵분열 현상의 유용성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트루먼의 발표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더불어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핵 공격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Truman 1945a; Stimson 1945). 일본 근방에 위치한 섬인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에서 이미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본 본토 진출에 또 다시 엄청난 희생이 예상되는 부담 속에서, 핵실험 성공에 대통령과 미군 인사들이 느낀 기쁨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각각 그로브즈 중장의 편지와 트루먼 대통령 및 스팀슨 육군 장관의 언론 발표문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3일이 지난 후에도 미국의 기대와 달리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려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이 히로시마 피폭 사실을 몰랐다던가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피폭에 대한 반동으로 오히려 미국에 대한 더 강력한 불사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 거리이지만,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만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쟁 수행 여력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이다. 오직 일본의 항복만이 우리를 막을 것이다”(Truman 1945b). 그 결과 히로시마에 이어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인류 역사상 두 번째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가 처음부터 핵폭탄 투하 장소로 계획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팻맨을 실은 비행기가 원래 투하 장소였던 고쿠라(小倉)에 도착했을 때, 고쿠라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팻맨을 투하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아이러니로 인해, 고쿠라 대신 나가사키가 두 번째 투하 장소로 선택되었 던 것입니다. 두 발의 핵폭탄이 본토에 떨어지고 채 일주일이 안 되어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裕仁)는 마침내 포츠담 선언 수락 의사를 밝힙니다. 2차 대전은 끝이 났고, 한국은 36년 만에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나가사키의 한국인과 일본인

팻맨이 떨어진 나가사키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옥과 같은 참혹함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한국인을 불문하고 마주해야 했던 고통스런 현실이었습니다. 폭탄의 파괴력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팻맨의 위력은 공교롭게도 인간의 생명력에 감탄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핵 폭풍 속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열 속에서, 그리고 그 외에 '죽음의 재'와 '검은 비' 그리고 방사선 속에서 말입니다. 그날을 묘사한 다양한 글들을 읽다 보면,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이 모든 현실을 피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사키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것을 겪고 같은 것을 느꼈을까요? 달랐다면,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1) 기록의 유무

나가사키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달랐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인은 기록을 남겼고 한국인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원자폭탄에 의한 피폭 경험을 직접 겪고 난 후 스스로 글을 남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하라 다미키(原民喜)가 없었고 나가이 다카시(永井隆)가 없었습니다. 하라 다미키와 나가이 다카시는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자신이 겪었던 원폭 체험을 글로 생생하게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라 다미키는 원래 글을 쓰는 작가였고 나가이 다카시는 방사선을 연구하는 의학자였습니다. 본업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체험을 글로 생생하게 남기기에는 적격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남긴 시점도 각각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일인 8월 6일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해 얻은 부상이 채 낫기도 전일 때였습니다(原民喜 1965; 나가이 2011). 그 생생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두 사람이 피폭 현장에서 살아남아 이런 글을 남겨놓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대에 들어서야 유일하게 한국인의 피폭 경험을 형상화한 작품이 발간되었는데, 한수산의 《까마귀》라는 장편소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가인 한수산은 1990년부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는데, 2000년대 초에 마침내 이 소설을 출간하였습니다(한수산 2003, 251). 이 소설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일본에 끌려오게 되었고 일본에 끌려와서는 어떻게 고통 받았으며, 또 원자폭탄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다음 한 문장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검에서까지 차별받았다, 조선인들은."(한수산 2003, 246). 짧은 단 한 문장 안에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원폭 이전과 이후의 형언할 수 없는 원통함이 구구절절 스며 나오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도에 한국 내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있는 《내 몸에 새겨진 8월》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강제징용을 당한 20명의 체험이 인터뷰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가 원폭이 갖는 무차별 폭력성, 지속성, 피해의 광범위성 등에 매몰되어 버리고, 그 결과 반인륜적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판과 반전평화에 수렴되고 마는 경향"을 가져왔기에,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왜 생겼는지, 정작 다뤄야 할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천착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명이 왜 그 장소에 있어야만 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6-7). 이 책의 가치는 거의

최초로 한국인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준다는 데 있으며, 책의 문제의식 또한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한국인들이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키 등에서 체류하다 원자폭탄을 맞아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국인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 형식으로 동원하였는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부분적인 자료이긴 하나 《나가사키의 피폭자》('ナガサキの被爆者)라는 책에 제시된 1945년도 6월 당시 미쓰비시 조선소(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의 종업원 수를 보면, 조선인 항목에 13,749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西村豊行 1970, 117). 이 수치는 당시 나가사키에 위치했던 미쓰비시 조선소 사례 하나만을 보여주는 데 불과합니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1945년도 당시 나가사키에 조선인이 3만 명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西村豊行 1970, 117). 당시 나가사키에는 미쓰비시 조선소 외에도 미쓰비시 병기 스미요시 공장과 가와나미 공업주식회사 고야기 조선소, 나가사키 항운주식회사 등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이 일하고 있는 대규모 군수 산업체가 몇 곳 더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수의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이 각 회사에 동원되고 있었다면, 나가사키 체류 조선인이 3만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주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앞에 제시한 군수 공장들이 아니더라도, 1945년도 나가사키에는 군수 공장들의 하청 업체나 시내 토목공사, 소개(疏開) 공사에 종사하는 조선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西村豊行 1970, 117). 앞서 《나가사키의

피폭자》에서 제시한 3만이라는 수치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국인과 식민지인

나가사키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달랐던 두 번째 지점은 나가이 다카시가 원자폭탄 투하 다음 날 동료 의학자들과 나눈 다음 대화를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세이키 선생을 중심으로 다들 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체 이것[원자폭탄]을 완성한 게 누구일까요? 벌써 여러 해 동안 전쟁으로 중요한 논문이 발표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신진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또 미국이 하는 일이니까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나누어 능률적으로 진행했겠지요." "이건 실험실에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원광채굴·제련·분석·순수분리, 이것만 해도 굉장한 공업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발표되면 알겠지만 일본의 병기연구소 같은 건 저편에다 대면 마루빌딩 옆에 성냥갑을 붙여놓은 것 같을 것입니다. 아마 몇 십만 명의 노동자의 힘이 이 한 개의 원자탄에 뭉쳐 있을 걸요.…" "재료는 뭘까요? 역시 우라늄?" […] "그렇지만 우라늄 원광은 지구상에서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전쟁에 쓰려면 대량으로 필요할 텐데." "우라늄광은 캐나다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대체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순간에 대량으로 그것도 한 번에 원자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각국 물리학자들의 두뇌 경쟁의 초점이었습니다 […]" "그렇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핵분열입니다. 마이트너 여사가 발견한!" "마이트너 여사? […] 우라늄 원자핵에 속도가 빠르지 않은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우라늄 원자핵이 갈라져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최근 과학계 최대의 성과이자 개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순수 우라늄 235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걸요.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라 해도 꽤 애를 썼을 겁니다"(나가이 2011, 99-105).

이 대화가 인상 깊은 이유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일부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핵무기 원리를 간파하고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사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캐나다 및 영국과 협력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 온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총 6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액수의 돈이 투입된 끝에 미국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본이 재원과 인력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게 밀리고 말았지만 당시 물리학계 내 최첨단의 지식을 소화하고 있음을 위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식민지였던 한국과 제국이었던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상 차이를 물리학을 통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가 있고 나서, 미국이 살포한 전단지를 통해 한국인들도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사실을 접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무기인지 알고 있는 한국인이 있었을까요? 당시 한국은 첨단 지식을 보유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국제 질서 상으로는 아예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일본은 식민지인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거의 박탈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당시 첨단 물리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피폭된 와중에도 원자폭탄의 원리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일본인 과학자들과 피폭된 채 죽어가거나 겨우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던 당시의 한국인들이 대비되나요? 그것이 바로 똑같은 원자폭탄에 피폭되었어도 일본인은 제국의 일원으로서, 한국인은 식민지인으로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 자국인과 타국인

달랐던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가이 다카시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의해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피폭되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피폭 피해자들을 돌봅니다. 성하지 않은 다리를 이끌고 산길을 8 킬로 미터씩 걸어 다니며 왕진을 다니기도 하고 그 와중에 졸도를 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돌본 환자들의 기록을 《원자폭탄구호보고》라는 형태로 남겼습니다. 그는 원자병에 걸린 자기 자신과 다른 환자들을 관찰하고 원자병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폭격이 있고 몇 달 후, 그는 피폭지였던 나가사키 우라카미에 움집을 짓고 유리병을 관찰하면서 우라카미의 안전성을 확인하고는 사람들에게 우라카미로 돌아와서 복구에 힘쓸 것을 독려하였습니다(나가이 2011).

여기서 느껴지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원자폭탄 투하 후, 일본인 피폭 환자들은 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마치 소설 까마귀에서처럼 조선인 피폭자들은 부상자뿐만 아니라 그 시체까지 차별 받아야 했다는 것일까요? 물론 당시 실제로 조선인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차별이 행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차이는 일본인들에게는 피폭지가 자신의 마을이고 집이고, 또 피폭자들이 자신들의 친구이고 가족이고 동네 이웃이었다면 한국인은 피폭을 당했으나 여전히 나가사키에 속할 수 없는 외부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피폭이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현실에서 자국인과 타국인의 구분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피폭에서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원폭 피해자로서 온전히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피폭을 겪어보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원자폭탄과 그 피해는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원폭에서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나가사키를 조용히 떠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피폭 당했지만 일본과 한국 어디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가사키의 한국인 피폭자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극의 원자폭탄

사랑방 5기가 나가사키를 방문하였던 2015년은 딱 광복 70주년이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된 해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 스스로 원폭 피해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한국인들에게는 오랫동안 해방의

원폭으로만 여겨졌던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인들에게 원자폭탄은 분명 해방을 가져다 준 물건이었습니다. "일본은 드디어 항복하였다. […] 40년의 군국(軍國) 야만으로 진주만을 폭격하던 왜적은 원자폭탄 두 개를 최후멸망의 선고로 인식하고, 포츠담 최후통첩을 그대로 복종하되, 소위 천황의 지위를 보존케 하여 달라고 가련한 호소를 하였다"(〈국민보〉 1945/8/15, 1). 1945년 8월 15일자 〈국민보(國民報)〉 기사 "승리와 멸망"에서는 원자폭탄 투하가 일본으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만든 연합국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었던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을 일본에게 패배를 가져다 준 해방의 원폭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원자폭탄 투하는 일본으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분명 일본을 항복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보고있지만(Asada 1998), 다른 쪽에서는 그보다는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는 것입니다(Hasegawa 2007). 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한국 측에는 해방의 원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의 원폭은 많은 수의 한국인들도 함께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죽음과 그 죽음이 보여주는 식민지의 비극성과 비참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자폭탄이 한국에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원자폭탄으로 인한 한국인 70,000명의 죽음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경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두 발의 원자폭탄은 식민지 조선의 억울함과 비참함을 극대화 시킨 비극의 원자폭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 평화를 기원하는 조형물

그 비극성은 우리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답사를 마치고 나서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조형물과 장식들이 넘쳐났지만, 자료관 어디에서도 한국인 피해자를 기억하려는 노력이나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원인에 대해 일본이

반성하려는 모습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 평화를 기원하는 학

그렇지만 절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방 5기 답사팀이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을 찾았을 때 본래 목표하였던 것 중에는 실패한것도 있었지만 성공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지 못한 것이 실패의 한 예라면, 그럼에도 나가사키 답사를 통해 사랑방 5기 답사팀이 일본인 원폭 피해자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성공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또 나가사키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들러 잊혀진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이 가능해지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경남신문〉. 2012. “故 장연준 화백, 日 법원 뒤늦게 피폭 인정 판결.” http://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44649 (검색일: 2016.1.20)

〈교도통신〉. 2013. “한국인 피폭자 남성, 나가사키에 승소…피폭자 수첩 교부 판결.”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3/07/069926.html (검색일: 2016. 01.20)

〈국민보(國民報)〉. 1945. “승리와 멸망” 8월 15일.

〈연합뉴스〉. 2013. “‘증인없다 '…日 법원, 한국인 피폭자 건강수첩 요구 기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66099 (검색일: 2016.1.20)

곽귀훈. 2003. “단돈 1원이라도 일본의 전쟁 책임 묻고 싶었다.” 〈신동아〉 8월호, 118-131.

국무총리실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서울: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나가이 다카시. 2011. 김재일 역. 《그날, 나가사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wonpok.or.kr/ (검색일: 2015. 8.10)
한수산. 2003. 《까마귀》. 서울: 해냄.

西村豊行. 1970. 《ナガサキの被爆者》, 東京: 社會新報.

Truman, Harry S. 1945a. "Press release by the White House, August 6, 1945." Accessed August 31 2015. http://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y_collections/bomb/large/documents/index.php?documentdate=1945-08-06&documentid=59&pagenumber=1.
————————. 1945b. "97. Radio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on the Potsdam Conference." Accessed August 31 2015. http://www.trumanlibrary.org/publicpapers/?pid=104.
Stimson, Henry. 1945. "Press release by Henry Stimson, August 6, 1945." Accessed August 20 2015. https://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y_collections/bomb/large/documents/pdfs/6.pdf.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1945. "General Hull and Colonel

Seaman-1325-13 Aug 45." Accessed August 20 2015. http://nsarchive.gwu.edu/NSAEBB/NSAEBB162/72.pdf.

Nalty, Bernard C. and Danny J. Crawford. 1995. "The United States Marines on Iwo Jima: The Battle and the Flag Rasings." History and Museums Division Headquarters, U.S. Marine Corps, Washington D.C.

MacEachin, Douglas J. 1998. "The Final Months of the War With Japan: Signals Intelligence, U.S. Invasion Planning, and the A-Bomb Decisi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Palmer, David. 2008. "Korean Hibakusha, Japan's Supreme Cour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the U.S. and Japan Confront Forced Labor and Atomic Bombing?"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Accessed July 11 2016. http://apjjf.org/-David-Palmer/2670/article.html.

Sadao, Asada. 1998. "The Shock of the Atomic Bomb and Japan's Decision to Surrender—A Reconsideration." *Pacific Historical Review 67*, (4): 477-512.

Tsuyoshi, Hasegawa. 2007. "The Atomic Bombs and the Soviet Invasion: What Drove Japan's Decision to Surrender?" *The Asia-Pacifc Journal: Japan Focus*. Accessed July 11 2016. http://apjjf.org/-Tsuyoshi-Hasegawa/2501/article.html.

4 장

한국인이 모르는 한일교류박물관

박선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둘째 날 여정의 시작

둘째 날 아침 8 시, 열띤 토론과 감상평이 새벽까지 이어졌던 전날 밤의 여운은 여전히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지친 몸을 이끈 채 사랑방 팀은 다음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숙소에서 1 시간 미만의 거리에 위치한 사가현 가라츠시 나고야 성 박물관(名護屋城博物館)으로, 한일교류사를 테마로 전시를 하는 곳입니다. 하영선 교수님께서는 이곳을 '한일교류박물관'이라는 별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버스를 멈춰 커피를 샀고, 달리는 버스에서 커피타임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저는 계획보다 짧은 요약 수준의 발제를 해야 했습니다. A4 한 페이지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남양 홍(洪)씨와 일본의 고우(洪) 가문의 400 년 만의 만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홍호연'(1581-1657)이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피로인(포로를 일컫는 당시 명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홍호연이라는 인물을 알게 된 것은 답사 전 한일교류박물관 내에 전시된

유물들을 공부하다 그의 유필을 발견한 이후부터 입니다. 이에 흥미를 가지고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던 중 우연히 보게 된 KBS 역사스페셜 '소년포로, 400 년만의 귀향'(2011.2.10)이 제 발제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박물관에서 하기로 하고 위 내용은 간략히 마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답사 전 작성했던 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홍호연과 같은 피로인을 조선으로 송환했던 쇄환사들(17 세기 초, 임진왜란 직후 3 차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관료들)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 중 2 차 쇄환사였던 '이경직'에 대해 박물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4 개의 시대별 유물 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유물들의 사진자료를 별도로 준비한 이유는 답사 장소가 박물관인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미리 눈으로 유물들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에 도착하기 전 약 10 분에 걸쳐 요약 발제를 마쳤습니다.

인적 드문 한일교류박물관

박물관에 도착한 후 우리가 마주한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보성의 녹차밭과 같은 푸르른 빛깔의 잎들이 건물을 올라가는 언덕과 건물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느꼈던 또 다른 한가지는 다른 관광·유적지와 달리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9 시 개관은 맞는 것일까?'라는 반신반의의 상태로 사랑방 팀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앞에는 제주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상징하는 돌하르방이 반겨주고 있었고, 건물 안에는 한일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깃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건물 외관

▲ 건물 외관 (2)

▲ 돌하르방

▲ 가즈나(絆: 유대), 정(情: 우정)

박물관에 대한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한일교류박물관은 1993 년 개관하였고 한일교류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위치한, 이제 흔적만 남은 나고야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 전, 규슈를 통일하고 조선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만든 성 입니다. 도요토미가 나고야를 거점기지로 삼은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설이 거론됩니다. 하나는 도요토미의 고향인 나고야와 발음이 같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나고야가 조선으로 향하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 입니다(〈한려투데이〉 2014/7/7). 나고야 성은 당시 오사카 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박물관에서 나누어 준 안내 책자에 따르면 나고야 성 박물관은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을 일본 열도 내에서 유일하게 '침략'으로 규정하는 박물관이며,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박물관이 외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 방문객이 적은 편인데, 현재 찾아오는 방문객마저 90% 가까이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지어진 박물관에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며 사랑방 5 기는 상설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버스 안에서 요약 발제 시 소개했던 주요 네 가지 유물들을 중심으로 상설전시관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의 시기 구분에 의한 유물 바라보기

박물관의 유물 배치는 사실상 설립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상설전시관의 경우 시대순으로 배치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전시는 조선 임진왜란 당시의 유물들이었습니다. 제 발제의 시대적 배경 역시 임진왜란 직후였기 때문에 처음 발제 준비를 할 때에는 조선 중기에 대한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영선 교수님께서 동주 이용희 선생님의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1970)라는 글을 읽어 보라고 권해주셨고, 그 글에서도 발제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관련 국가 간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는 단순히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닌 양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리고’ 있느냐 하는 ‘심상’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주 선생님은 이러한 심상문제에 기초하여 한일 관계를 5 기로 구분합니다.

[표 1] 심상에 기초한 한일관계 시기 구분

1 기	2 기	3 기(조선왕조시기)			4 기	5 기
상고~ A.D. 9 세기말	10 세기~ 여말 시대	조선개국~	임진왜란~	병자수호조약(1876)~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	해방 이후

자료: *이용희(1970)를 근거로 저자가 재구성

위 표에 의하면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인 근현대 4-5 기는 한국의 대일(對日)심상에 있어 원수감이 극대화 된 부정적인 심상만 남은 시기로서 굳이 이용희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발제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제 1 기는 상고로부터 A.D. 9 세기 말까지로 이 시기는 한국 측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한국이 일본에 대한 통일적 심상을 가졌는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한토'(韓土)에 대한 이야기가 사료에 빈번히 등장하는데, 신라·백제·가락의 뜻으로 두루 쓰였다고 합니다(이용희 1970, 4). 이를 통해 일본은 한국을 선진문화 내지는 자기 문화의 모체라는 심상으로 한토를 우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물로 저는 '흑요석'을 꼽았습니다. 고대 5000 년 전 흑요석이라는 돌이 통영의 연대도라는 섬과 여수의 안도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한려투데이〉 2014/7/7). 또한 일본의 가라쓰에서도 같은 종류의 돌이 발견되었는데 원래 흑요석은 일본 규슈 지역에서만 생성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즉 서로를 무엇이라 호칭하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그 당시부터 일본 열도와 한반도가 교류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위 고대라고 분류되는 시기에 일본은 백제나 가야와 교류를 해왔는데, 가야는 다른 삼국보다 이른 멸망을 맞이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 역시 짧았습니다. 일본과 백제의 경우는 백강 전투를 기점으로 교류가 단절되게 됩니다(〈한려투데이〉 2014/7/7). 우리는 역사 수업시간을 통해 신라가

삼국통일 전 백제와 전투를 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일본은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했지만 백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신라의 수군에 의해 패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일본은 한토와 교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2 기는 10 세기로부터 고려 말까지 입니다. 고려는 1 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오히려 대원(對元) 관계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왜구 격퇴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심상 정도 만 보입니다 (이용희 1970, 7-8). 이 시기를 대표하는 박물관 내 유물로 저는 '수월관음도'를 꼽았습니다.

"수월은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뜻으로 허상을 상징합니다. 욕망이나 집착을 상징하기도 하여서 헛된 욕망을 버리고 불심에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연합뉴스〉2009/8/23).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비록 복제품이지만, 고려시대 때 전성기였던 불교 미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려 충선왕의 왕비였던 숙비가 8 명의 궁정 화가에게 요청해 1310 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수월관음도와 달리 왼쪽을 향해 앉아 있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가가미신사가 소장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월관음도는 왜구의 침탈로 인한 소실로 정확한 경로를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의 경우 1391 년 일본 승려 료켄이 이 그림을 가가미 신사에 진상했다는 기진명(寄進銘: 물품을 기부하여 바침)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2009/5/01). 하영선 교수님께서는 이 작품에 관심이 많으셨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단에 선재 동자가 그려진 이유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선재 동자는 불교의 도를 구하기 위해 관음을 찾아가는 장면을 형상화 한 것이고, 대부분의 수월관음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라고 합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제 3 기는 조선왕조 시대이며, 왕조를 중심으로 전, 중, 후기로 나뉘어 집니다. 전기는 조선개국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중기는 임진왜란부터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까지, 후기는 일제강점 때까지로 구분됩니다(이용희 1970, 8). 발제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 중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의 한일 양국의 심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 전기는 사대질서에 따라 일본이 조선 왕조를 '상국'(上國)' 으로 모시던 때로, 일본이 조선의 불경과 문화재를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비하하는 의식이 남아있던 때였고, 주변국에 대한 사리도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는 대마도에서 왜구를 격퇴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희 선생님 의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몇몇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무력으로 강성해 지리라고는, 나아가 조선을 침략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이용희 1970, 10). 사대질서에 따라 조선이 '명'을 침략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임진왜란'은 한일의 정신사적 문제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개인적으로 "조선은 그대로인데 일본이 변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일본이

조선을 '예'로써 섬기고, 도자기 및 불경을 수입해왔으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는 '무력' 을 통해 영토를 침략하고 문화재를 약탈했습니다. 이는 분명 일본의 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도 일본의 강성해진 무력을 경계하기 보다는 '상국'을 침략한 야만적 국가로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의 조선은 일본에 대한 '공포' 보다는 '수치심 내지는 굴욕감'으로 심상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나아가 '구수감'(仇讐, 원수로 인식하는 태도)이 깊어졌다고 이용희 선생님은 표현하셨습니다(이용희 1970, 10).

한편, 임진왜란에서 요주의 인물은 누가 뭐래도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일 것입니다. 일본 천황의 존재와는 별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룬 일본 전국 통일은 조선과 명에 대한 침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무력에 대한 자신감의 연장선이 조선 침략을 통해 발현됨으로써 그 스스로의 명성 역시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울산성 전투도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울산성전투도>를 꼽았습니다. <울산성전투도>는 정유재란 당시의 1597 년 12 월부터 1598 년 1 월까지 조명연합군 5 만 명이 일본군을 공격한 결과 일본군 1 만 5 천명의 군사 중 500 명만이 남을 정도로 치열했던 전투를 그려낸 것이라고 합니다(〈한려투데이〉2014/7/7). 그 큰 규모답게 그림의 크기도 굉장히 커서 사랑방 5 기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결국 일본 구원군의 도착과 함께 조명연합군이 패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림에서도 우측 하단부분에 일본군이 배를 타고 내륙으로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이 그린 조선의 승전도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동아일보〉2009/9/27). 그리고, 울산성전투도 바로 옆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홍호연의 유필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포로, 홍호연을 만나다

홍호연(1581-1657)의 유필을 보면 '참을 인(忍)'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이라는 글자 아래에는 '참는 것은 마음의 보배요, 참지 못하는 것은 몸의 재앙이라'는 글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필이 되었습니다. 홍호연은 당시 규슈 지방에서 혹부리 모양의 독특한 서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 홍호연의 유필

홍호연은 원래 경남 산청에 거주하던 남양 홍씨 양반가 자손으로 조선 이름은 운해였습니다. 그는 1593 년 2 차 진주성 전투 당시 일본 나베시마 나오시게(사가현의 초대 영주) 가문에 포로로 잡혀갔고 일본에 정착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포로부'라는 것을 따로 둘 만큼 인적 수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느질이나 공예를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데려갔고 다음으로 농사나 허드렛일을 하는 노비들을 데려갔습니다. 당시 12 살이었던 홍호연은 붙잡혀 갈 때 '붓'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글을 모르던 사무라이들에게 글을 아는 조선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 수탈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조선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타의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모시던 장군의 부음을

듣고 사무라이의 전통에 따라 노복이었던 홍호연은 할복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성을 바침으로써 일본 영주로부터 자신들의 후손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호연의 후손들은 대대로 '고우'라는 남양 홍씨의 성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2011 년, 한일교류박물관과 학술협정을 맺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선포로와 관련해 홍호연의 유물들을 전시했습니다. 이에 일본 전역에 살던 홍호연의 후손들은 경남 산청의 남양 홍씨 일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400 여 년 만에 이러한 만남이 가능했던 연결고리에 이곳 한일교류박물관이 있었다는 것이 발제자로서 감격스러웠습니다(KBS 2011).

17 세기 초 쇄환사의 대일외교: 이경직의 '부상록'

정해진 유물 소개를 마치고 상설전시관 옆 작은 공간에서 답사 전에 공부했던 것을 발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앞서 만난 홍호연과 같이 임진왜란 중 일본군의 포로가 된 조선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들을 송환하는 역할을 했던 '쇄환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로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 조선의 통신사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된 것에 비해 쇄환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양의 자료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쇄환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1607 년부터 1636 년 사이, 조선 역사에서 총 세 차례뿐입니다. 1636 년

이후로는 다시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교류를 했기 때문입니다(손승철 2007). 쇄환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임진왜란 직후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7 년 간의 임진왜란 전쟁은 결국 노량해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고, 도요토미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뒤를 이어 도쿠가와 시대(에도 막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본은 조선과 새롭게 통교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임진왜란 후 심상을 결정짓게 됩니다. 도쿠가와는 그 전의 조선침략과 관련된 모든 과(過)는 도요토미 정부에 돌렸습니다. 실제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 당시 도쿠가와의 군사는 전혀 출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조선 정부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내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통교를 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06 년 비공식적으로 사명대사를 파견(유준광 2008, 20-21) 하여 일본 천황의 사죄를 받아낸 후, 조선 정부는 굴욕감을 안고 일본의 통교에 응하게 됩니다.

결국, 선조 1607 년부터 인조 1636 년까지 조선의 관료들은 3 번, '회답겸 쇄환사'라는 이름으로서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포로 송환에 의의를 둔 것이었습니다. 《해행총재》에 남아있는 회답겸 쇄환사와 관련된 기록은 [표 2]와 같습니다. 첫번째 회답사에서 남은 기록은 경섬의 《해사록》이고, 두번째에서는 오윤겸의 《동사상일록》과 이경직의 《부상록》, 마지막 회답사에서는 강홍중의 《동사록》입니다.

[표 2] 세 번의 회답겸 쇄환사

연도	정사	부사	종사관
1607 년(선조 40 년)	여우길	경섬	정호관
1617 년(광해군 9 년)	오윤겸	박재	이경직
1624 년(인조 2 년)	정립	강홍중	이계영

첫 번째 회답사는 여우길을 정사로 한 1607 년(선조 40 년)에 파견된 일행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선조수정실록 39 년(1606)》12 월 1 일 글을 보면 당시 임란 후 첫 사행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훈(2014)에 의하면, 당시 조선 조정에서 사행의 명칭에 대해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파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공통인식이 있었으나 그 대안으로 어떤 명칭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의정 유영경은 사행 명칭으로 통유사(通諭)를 제안했지만 선조는 '유(諭, 회유하다, 타이르다)'자가 이웃나라에 쓰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았고, 회답사(回答使)라는 명칭을 관철시켰습니다(이훈 2014). 그러나 일부 조정 관료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 사행 길은 탐탁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해행총재》속 사행록 기록에 따르면, 1 차 회답겸 쇄환사로 돌아온 포로는 총 1418 여 명이라고 합니다. 포로를 송환하는 목적 없이 단순히 회답사로 파견되는 일이었다면 당시 조정과 신하들의 반발이 더욱 거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1 차 쇄환에 대해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까닭은 1 차 쇄환의 결과로 1609 년 광해군이 일본과

공식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일본에 공식적으로 통교를 허하고자 대마도를 통해 기유약조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약조-일본의 국서를 보내올 것, 임란 중 왕릉을 파낸 범릉적을 압송할 것, 마지막으로 조선 피로인들을 돌려 보내줄 것-가 확인되면 통교를 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유준광 2008, 34-39).

하지만, 기유약조 이후로 아직도 고국에 돌아 오지 못한 조선 피로인을 데리러 가는 두 번째 쇄환사행은 그로부터 10 년 후인 광해군 9 년(1617)에 이루어집니다. 정사 오윤겸(1559-1636)과 종사관 이경직(1577-1640)일행은 두 번째 회답겸 쇄환사로서 일본에 4 개월 간 체류한 후 321 여 명의 포로를 송환해 왔습니다. 저는 오윤겸의《동사상일록》과 이경직의《부상록》을 모두 비교하며 읽었지만, 오윤겸의 일기의 경우 날씨 및 식사, 아주 간단한 느낌 정도의 서술밖에 없던 것에 비하여 이경직의《부상록》은 꽤나 구체적이고 그날그날의 상세한 기록이 담겨있었습니다.

이경직의《부상록》에서 부상(扶桑)이란 해가 돋는 동쪽 바다라는 뜻으로, 일본을 달리 일컫는 말입니다. 그의 일기에는 전반적으로 조선의 관료가 일본을 원수로서, 금수(禽獸)로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또한 국서를 개조하는 조선 관료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건넨 답서에는 조선 왕과 대등한 '왕'이라는 위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일본에 국서를 전달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으나, 어찌 되었든 조선의 왕이 국서를 주고 받는 상대가 그와 대등한 일본의 '왕'이 아니라면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조선 관료들 사이에서 국서가 개작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천황 아래 '왕'이

없었고, 그 역할을 하는 장군만이 있었는데 그들이 조선의 왕에게 답서를 올리는 형식으로 교류가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선에서 중국 조정을 '천조'(天朝)'라고 부르는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문화권 내에 적용되는 사대질서 하에서 표면상 대등한 국가인 일본과의 화평을 도모해온 조선이었는데(이용희, 1972), 위와 같은 모습은 진정 일본을 '중국문화권의 사대질서' 속에서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한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사 전 보고서에서와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해질 필요가 있으나, 실제 발제에서는 시간상 의 제한으로 모두 다룰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부상록》에 나타난 조선인 포로에 대한 이경직의 극심한 배신감과 실망, 당시 사행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제로 이경직이 만났던 조선 포로들은 일본에 잡혀온 지 20 년이 넘어 대부분 '조선인'이라기보다는 '일본인'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이미 가족과 연락이 끊겼기에 조선에 꼭 돌아가야겠다는 의지나 조선에 대한 그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경직은 포로들 개개인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경직은 당시 포로 송환에 대한 일본의 협조 또한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에 일본에 느끼는 원수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 10 세 이전에 포로된 사람은 언어와 동작이 하나의 왜인이었는데 특히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사신이 왔다는 것을 듣고 우연히 와서 뵙는 것이고 고국을 향모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또 여기 그

> 돌아가고 싶기는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모두 품팔잇군으로 고생하는 사람이고, 생계가 조금이라도 넉넉하여 이미 뿌리를 박은 사람은 돌아갈 뜻이 전연 없었다. 혹 듣기도 하고 혹 보기도 하였는데 마음과 태도가 가증스러워 바로 풀 베듯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또 왜인들의 풍속이 사환(심부름하는 자)하는 사람을 가장 요긴하게 여기므로 조선의 포로는 태반이 왜인의 노복이 되어 있는데…… 왜인들의 교묘하고 간사함이 너무도 분한스럽다(이경직 1977, 69).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경직 및 당시 쇄환사들은 '조선인'이라면 모두 조선에 송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지현(2014)은 당시 쇄환사의 인식을 '강제성을 띤 쇄환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사관 일행은 더 이상 일본에 머물러봤자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김개금이라는 포로와의 대화에서입니다. 김개금은 12-13 세에 창원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한국말을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타이른즉, 답하기를, "왜 주인이 지금 강호에 있으니 돌아오기를 기다려 고한 다음이라야 갈 수 있습니다. 20 여년 이나 은혜 받은 사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재삼 타이르기를, "은혜를 받은 것이 너의 부모와 어느 쪽이 더한가? 네가

> 포로되어올 때에 너의 부모에게 고했던가? 네가 만약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즐거움이다. 너의 부모를 다시 보는 즐거움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금수는 지극히 무지한 것이지만, 새는 옛 둥우리로 돌아오고 말이나 소도 제 집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금수만 같지 못하여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 대개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자는 조금 식견이 있는 사족 및 여기에 있으면서 고생하는 사람이었고, 그 나머지 처자가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이미 그 삶이 안정된 자는 돌아갈 뜻이 전연 없으니 가증스럽기 한이 없는 일이다. 장군의 영이 내렸고 집정의 문서가 있는데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건마는, 각처 왜 주인들이 숨기고 내놓지 못하며, 마도에서도 또한 마음껏 하지 않으니, 비록 이곳에 오래 머물러도 다만 수고롭기만 하지 이익됨은 없을 것이므로 길을 떠나는 것만 같지 못하다(이경직 1977, 113).

위에서 이경직이 "이 곳에 오래 머물러도 다만 수고롭기만 하지 이익됨은 없을 것이므로 돌아가는게 낫겠다."라고 탄식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서 2 차 쇄환사들의 포로 송환 임무는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 차 쇄환사의 경우 사실상 그 목적이 1, 2 차와 달랐습니다. 구지현(2014)에 의하면, 3 차 쇄환사는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막부의 장군이 된 것을 축하해 달라는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 차 쇄환 때와 마찬가지로 포로들을 송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고, 3 차 쇄환사가 조선 피로인에 느끼는 심상은 2 차 때와 같이 실망감 혹은 배신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차 쇄환사 때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차 쇄환사 때 이미 조선인 포로들의 심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3 차 쇄환을 떠났기에 강홍중은 이경직이 받았던 만큼의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 차 쇄환사인 강홍중의《동사록》을 보면 이경직과 비교했을 때보다 대일에 대한 심상과 그 심경의 양상이 다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경직의 글에서 보이는 일본에 대한 심상은 여전히 적대감과 야만국이었던 반면, 강홍중의 글에서는 '일본을 실제로 보니 물화가 시장에 산같이 쌓여 백성의 부유함과 물자의 풍성함이 자못 우리나라의 비교는 아니었다(강홍중 2008, 344).'고 전합니다. 또한 일본의 형벌이 엄하여 일본 내 백성들의 질서가 잘 잡혀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 한 개인의 일본에 대한 심상을 전체 심상으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부상록》에 나타난 이경직의 대일심상과 포로에 대한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시 조선 관료들이 임란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일본을 무시하거나 원수감만을 드러내는 지극히 '단안(單眼: 한 눈으로만 바라보는)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3 차 쇄환 때는 일본에 대한 보다 복잡한 시선을 드러내는 양상을 보였고, 18 세기 통신사 사행록을 보면 점차 일본의 발전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일본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복안(複眼: 여러 눈으로 바라보는)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방 팀도 내내 이야기를 했지만,

임란으로 한 번 쓴맛을 본 조선이 일본의 강성해진 무력과 일본 내 군사체계에 대해 왜 아무런 조사 및 탐사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상대를 원수로 느끼는 감정적 날을 감추고 단순히 쇄환의 목적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대일 외교를 펼쳤다면 조일 관계가 어떤 형국이 되었을 지에 대해서도 상상해보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물관을 나가면서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이었고, 한국인들은 거의 찾지 않는 '한일교류박물관'에서 사랑방 팀은 '참을 인(忍)' 이라는 글자 하나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인 홍호연의 삶과 당시 한일을 오고 갔던 쇄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영선 교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우리나라에 한일교류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일관계를 테마로 특별 전시를 하는 박물관은 종종 있지만, 부끄럽게도 한일교류를 이름으로 한 박물관은 현재로는 한국에 없습니다. 앞서 동주 이용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관계는 사실상 '정치적 혹은 외교적' 의미에서의 심상으로 생성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와 상관없이 우리 역사에서 공적 혹은 민간적인 차원의 한일 간 교류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물자들이 한일 양국을 오고 갔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을 오고 갔던 사람들, 혹은

아직도 생명력을 보유한 유물들에 대해 전시하는 박물관을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 단체사진

참고문헌

강홍중. 2008.《동사록》. 신편 국역 사행록 해행총재 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구지현. 2014. “임진왜란 피로인에 대한 회답겸 쇄환사의 인식변화.” 〈한국어문학연구〉 63, 37-61.

손승철. 2006.《조선통신사 일본과 通하다: 우정과 배신의 500 년사》. 서울: 동아시아.

<연합뉴스>. 2009. “ 관음사찰 33 곳, 성지순례코스로 탄생하다.” 8 월 22 일.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09/08/22/0903000000AKR20090822071300005.HTML(검색일: 2016. 02.04)

<연합뉴스>. 2009. “불지종가 통도사에 온 수월관음도.” 5 월 1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639887(검색일: 2016. 02.04)

오윤겸 . 1977.《동사상일록》. 고전 국역총서 해행총재Ⅱ.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유준광. 2008. “17 세기 전반 조선의 대일관계 연구: 회답겸 쇄환사의 파견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직. 1977.《부상록》. 고전 국역총서 해행총재Ⅲ.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이광표. 2007. “ ‘울산성 전투도 병풍’ 국내 들여온다.” 〈동아일보〉 6 월 26 일. http://news.donga.com/3/all/20070626/8458756/1(검색일: 2015. 08. 26).

이용희. 1970. “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신동아 > 8 월.

_____. 1972.《한국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이 훈. 2014. “임란이후 ‘회답겸 쇄환사’로 본 대일본외교 전략.” 〈한일관계사연구〉 49, 267-309.

<한려투데이>. 2014. “법고창신 정신으로 만난 히젠나고야성 박물관.” 7 월 7 일. http://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92(검색일: 2016.02 .05)

KBS 역사스페셜. 2011. “소년포로, 400 년만의 귀향.” 2 월 10 일.

5 장

사세보 기지에서 바라본 태평양의 미래

김명정 · 성시리
존스홉킨스(SAIS)/연세대학교 대학원

시작하며

한일박물관에서 한일 간의 과거 인·문 교류를 돌아본 우리 사랑방은 다음 목적지로 한일관계의 현재와 내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해양안보질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세보 주일 미군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사세보는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 북부에 있는 항만 도시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사세보 해군기지는 제 2 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제국의 해군기지였으나 전후 군항이 폐지되고, 이곳에 1946 년 사세보 미국 해군기지(U.S. Fleet Activities Sasebo)가 건설되었습니다. 사세보 미 해군기지는 6· 25 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군의 물자수송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6· 25 전쟁 이후 결성된 일본 자위대와 미 해군은 현재까지 사세보 항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세보 미 해군기지는 미국 해군사력 제 7 함대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 사태 시 지원을 위해 대비훈련을 하는 곳으로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아시아 해양질서와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사랑방과 오비오스(Ovios) 사령관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세보 기지는 답사 일정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곳이기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보로 향했습니다. 해양안보라는 주제는 늘 책상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정치 학도로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기지를 지휘하는 사령관과 대담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기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미팅 2 주 전 우리가 작성한 영문 보고서를 사령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령관과의 만남이 한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사령관에게 우리가 동아시아 안보와 사세보 기지에 대한 기본지식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미팅 시에는 더욱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사령관에게 보내준 사전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중국의 꿈, 미국의 재균형 전략 그리고 평화의 바다>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우리는 사전조사를 통해 오늘날 동아시아 해양을 누비는 G2 의 정책을 살피고 동아시아 해양의 미래 질서를 그려보려 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질서'라는 주제가 매우 광범위하고, 우리는 군사 안보 문제를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보고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도 있었으나, 평상시에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과 미 동맹국의 해군력을 얼마만큼 좇아왔을까?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른 균형과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중국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껴 그에 따른 군사 증강을 하기 위한 정책인가? 미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행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동아시아의 바다는 평화로 가고 있는가, 군사경쟁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 통계와 자료,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과 행태를 열심히 살폈으나 우리는 가지고 있던 질문을 시원하게 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을 처음 접했을 때 했던 기본 이론의 가정(假定), 즉 '국가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령관과의 만남을 더욱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세보 해군기지 입구에서의 해프닝

탁 트인 바닷길을 따라 달려온 우리는 바다에 위엄 있게 떠 있는 함대를 보며 해군기지에 다다랐음을 알았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렸더니 사전에 만나기로 한 유키 테레사키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버스가 미군 기지가 아닌 일본 자위대 기지로 온 것입니다. 다시 차를 돌려 3 분쯤 달리니 'U.S. FLEET ACTIVITIES, SASEBO' 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흰색 군복을 입은, 혹은 굵은 팔뚝이 보이는 티셔츠를 입은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 차창 밖 사세보 함대

▲ 사세보 해군기지 입구

▲ 기지 통과를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습

사세보 기지 입구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기지 도착 전 사세보 시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우리는 혹시 기지 통과에 여권이 필요하지 않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급히 버스에서 확인해보니 두 명의 친구가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호텔에서 멀리 달려온 우리는 혹여나 기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미 해군 기지 입구에서 만난 유키 테레사키상에게 이 사태를 설명하니 원래는 기지통과를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나 자신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했으므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유키상이 보안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0 분 정도 지체되었지만 다행히

낙오자 없이 모든 멤버가 기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버스를 타고 기지 안을 1-2 여 분 달려 사령관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오비오스 사령관과의 만남

▲ 사세보 미 해군기지 오비오스(Ovios) 사령관

사령관과의 미팅이 잡힌 컨퍼런스룸에 도착하고 5 분 뒤 사세보 미 해군기지 오비오스(Ovios)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오비오스 사령관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출신으로, 2003 년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아라비안 해, 로드 아일랜드 주(Rhode Island) 등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4 년 사세보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사령관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날카롭고 우락부락한 모습보다는 순수한 시골청년처럼 착하고 순박해 보였습니다.

▲ 오비오스 사령관의 발표 PPT 화면

사령관은 사랑방과 간단한 인사를 한 뒤, 사세보 기지의 전반적인 역할과 기지운영에 관해 20 분 가량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령관의 브리핑은 우리가 사전조사를 통해 알고 있던 부분이 많았기에 브리핑이 진행되는 내내 토론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초조했습니다.

사령관의 브리핑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Q&A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세보로 오는 버스 안에서 어느 정도 질문을 정리하고 질문자 또한 지정해 놓았기에 토론은 막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질의응답 중 일부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 사령관의 설명을 듣고있는 사랑방

Q: 군인으로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어떻게 보십니까?

A: 일상 업무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중국 해군이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이 되어가면서 피곤해졌어요. 물론 중국이 바다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절차를 따르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죠. 중국 해군은 이전에 비해 움직임이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일을 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미 해군은 이전에 더 자유롭게 바다를 다녔고, 유일하게 신경 썼던 국가는 25 년 전 러시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내 행위자들과 그들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Q: 지역 내 군비경쟁 혹은 안보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안보딜레마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하는 사업들과 이에 대한 미 국무부 장관의 발표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역내 군비경쟁이 있다는 사실보다 국가 간 해군력 차이와 계산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위험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Q: 안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군복을 입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공해상의 통행 자유권이 보장되어 세계 공동의 해양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정해진 규칙과 일반적인 관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활동에 기반을 둘 수 있는 공통적인 합의 말입니다.

Q: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 배치 증강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GDP 대비 군사력 지출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면서 아시아로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중국을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 아닐까요?

A: 이 지역에는 미국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특히 무역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은 미국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해군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해안로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태평양 무역, 말라카 해협 무역, 남중해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또 미국에 수출을 하기에 중국과 미국 모두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익이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 집중 재배치 한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안의 절반은 태평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사력 증강과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 합니다.

Q: 새로운 미일 안보동맹 가이드라인이 사세보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까요?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날까요?

A: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신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보다 더 높은 단계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일본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선박들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변화들이 앞으로 일상 업무와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사세보 기지와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Q: 미국과 일본이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일본이 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물론입니다. 미일 동맹은 모두 지역의 안보와 불안 요소를 걱정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에 어떤 방식으로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고, 동맹을 맺는다는 것에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에 우리를 끌고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사세보 기지의 역할 중 하나는 한반도 유사 사태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런 상황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반도 유사 사태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전에 우리는 중국, 남중국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한반도 역시 안보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분리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역내 행위자들 간 행동은 남중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반도 유사 사태도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분리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Q: 사세보 미 해군기지의 역할이 동아시아 안보와 한반도 유사 사태 대비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까?

A: 같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제 7 함대 사령관과 이야기를 했을 때, 사령관님께서는 두 가지 안보문제를 두고 매일 고민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가지 이슈가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큽니다. 여기서 운용되는 배와 부대들은 두 가지의 유사 사태 모두를 위해서 대비되어 있습니다.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서 호주에서부터 남중국해, 심지어는 인도양에서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과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역량을 유지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부대는 저희입니다. 저희 배들이 호주에 있고 내일 밤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국 샌디에고(San Diego)항에서 출항하는 배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것입니다.

Q: 중국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A: 당연히 중국보다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불신"하고 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중국은 자기 나름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이 지역의 이익이나 지역 외 국가들의 이익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들 이외에도 사세보 기지의 역할 등 여러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사령관은 해양국가인 미국 측에 태평양은 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과 그 때문에 미군이 태평양에 존재하면서 무역 통상로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이득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생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물어봄 직한 질문들을 사령관에게 했다. 까다로운 질문에 답해주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하영선 선생님의 감사 말씀으로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사령관은 만남을 마치며 자신은 정책가라기보다는 정책가들이 내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에 답변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념 사진을 찍고 사령관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오비우스 사령관과 사랑방 5 기

사랑방 5 기 10 명 대부분이 질의응답에 참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질문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보다 20 분 정도 더 긴 시간을 사령관과 함께 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만족했고, 우리의 까다로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답변해준 사령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사령관을 너무 몰아붙인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다음 기수 사랑방이 답사를 거절당하는 것은 아닌지 잠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보다 실무적인 질문을 더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흥미로운 롭 만남을 끝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사세보에서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 사세보 기지를 떠나며

맺으며

사령관과의 만남은 군인이자 실무자 입장에서 보는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엿볼 수 있었던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떠나 일상의 업무가 복잡해졌다는 사령관의 실무적인 답변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문자로만 국제정치를 접하던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지, '군비경쟁', '안보딜레마' 등과 같은 용어가 제시하는 틀에 갇혀서 현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서의 개정 등에 있어서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우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섣불리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의 변화를 크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령관의 답변을 통해 책상머리 앞에만 앉아있는 우리가 현실을 다소 부풀려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현실보다 더 부풀려진 탁상공론은 오히려 국가 간의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만청께서 현실보다 개념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일본의 군사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함으로 요동치는 이 시기에 태평양이 불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국제정치학도들이 '평화의 바다'를 꿈꾸며 현실을 직시하는 '꿈꾸는 현실가'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

6장

도자기, 뱃길을 따라 문명을 여행하다
_아리타 도자기 마을

김유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여행을 시작하며

일본 규슈 북부의 작은 마을 아리타(有田)에게 201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바로 "일본 도자기 탄생 아리타요 창업 400주년(日本磁器誕生 ·有田焼創業400年)"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생산했던 아리타 도자기 마을을 떠들썩하게 할 기념비적인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 현에서는 2011년부터 실행위원회를 꾸려 이를 기념하고 '향후 50년,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각종 사업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1] "산업진흥· 관광진흥·전통문화진흥"이라는 3대 슬로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일본산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1] 일본 도자기 탄생·아리타 창업 400년 사업 실행위원회. "헤이세이 27년 사업 기본계획" 실행위원회 공식홈페이지 (http://arita400.com/) (검색일: 2015.6.10.)

야심 찬 장기적 비전이 엿보입니다. 둘째 날, 한일교류박물관에서 사세보 해군기지로 이동하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아리타 마을의 이정표와 아리타 400주년을 알리는 광고물은 드디어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던 현장에 왔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 도잔진자에서 내려다 본 아리타 마을의 모습

아리타는 도자기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 약 2만 1천 명의 중소도시입니다. 사가 현 관광 홈페이지에서는 매년 4월 29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도자기 축제를 개최하며, 일본 전역에서 100만 여 명의 관광객이 아리타 도자기 시장에 몰려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타 도자기 시장이 열릴 때에는 JR 아리타역 주변에서

가미아리타(上有田)역까지 약 4km의 거리에 600개가 넘는 가게가 늘어서 일몰 전까지 붐빈다고 합니다. 사랑방 5기는 축제기간이 끝나고 한참 뒤에 마을을 방문했기에 한적했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인 40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다면 현지에서는 과연 어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변방의 일본, '도자기 전쟁'을 치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자기라고 부르는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와 같은 문화재들은 엄밀하게 말해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고운 태토(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유약을 바른 후 높은 온도에서 구워 완성한 그릇으로(국사편찬위원회 2010, 184), 대략 1,000℃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퍽퍽한 흙이 유리와 비슷한 성질로 바뀌게 되는 인류의 독특한 발명품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가마를 만들고 아름다운 형태와 색채를 표현해내는 자기 제작과정은 당대 문명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이 자체적으로 자기를 생산해내기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중국과 한반도, 베트남 일대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자기 생산의 중심지였고, 한반도와 베트남에서 자기 생산이 가능했던 것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새로운 자기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1) 차와 다기, 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다

중국은 14세기까지 도자기 수출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베트남이나 일본의 자기 등 대체재가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도자기가 제일의 '상품'(上品)으로 취급되었습니다(Gunn 2011; Finlay 1998). 이 대목에서 중국의 자기가 미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술표준'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standard)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 가장 발전되었는가 하는 측면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표준에 제대로 부합"한다는 것은 기술 자체의 수용을 넘어서 기술이 담고 있는 문화와 인적 요소의 흡수, 그 기술로 구현된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수반되어 표준의 발신자에 대한 일종의 동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표준기술을 반영한 도자기만을 생산하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품질을 가졌다고 당연시 여기는 평가 및 소비시스템, 그러한 생산물을 풍부하게 누리는 사회·문화적 풍토까지 전반적인 인간 생활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생산해내는 도자기와 유사한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당대 문명의 중심에 가까워짐을 뜻합니다.

도자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해당 지역에서 '차(tea) 문화'가 널리 퍼지고 이에 따라 다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은 기술의 전파와 문명의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차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차를 '제대로' 마시기 위한 도구로서 도자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와 소비행태가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중국의 자기를 수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자기 생산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대략 10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 소비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당시 정치적 불안정으로 중국산 수입도자가 부족했고, 고려가 자체적으로 차 도구를 제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국사편찬위원회 2010, 186). 특히 고려청자의 종류에는 일상 생활용기보다도 차 문화를 반영한 그릇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청자 발달에 차 문화가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국사편찬위원회 2010, 192-97). 일본 역시 15세기 중엽 이후 다도가 폭넓게 유행하면서 다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전국역사교사모임 2013), 이로 인해 도자기의 자체 생산에 대한 동기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규(2000)는 일본에서 무사 계급이 다도를 즐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며, 이를 "(무사 계급의) 야만성을 고급한 차 문화로 포장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김재규 2000, 44). 여기에서 '차'라는 문화적 요소와 '도자기'라는 기술적 요소가 밀접하게 융합되어 단순히 물건을

수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기술을 받아들이고 생산의 주체가 되려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조선 도공, 일본 자기 탄생의 산파가 되다

기술의 전파와 수용의 과정에서는 문화적 요인의 정착과 함께 인적 교류도 동반됩니다. 특히 전통시대에서 도자기 제작 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될 여지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장인의 기술이 포함되므로 단순한 매뉴얼의 전수만으로는 제대로 전파·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합니다. 다양한 자기들을 살펴보면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제작된 경우도 발견되지만 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나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자기의 대체품이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기술자가 이주·정착하여 기술을 전수해주는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가 기술 전파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주목 받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최초의 독자적 자기인 고려청자의 최초 제작 집단은 중국인 도공이었습니다. 10-11세기 고려의 가마 축조기술이나 축조재료, 세부 구조물, 생산된 도자의 종류와 형태 등이 10세기 전반 경 중국 오대(五代) 시기 저장성(浙江省) 항저우만 남쪽 해안 지역의 월주요(越州窯) 장인들이 구사했던 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은 중국의 도공들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잘 보여줍니다(국사편찬위원회 2010, 189). 물론 이후에는 고려 도공들이 고려 요업의 주축을 이루었지만, 초기의 기술 전수와 정착은 기술을 체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독자적인 자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게 된 한반도와는 달리, 일본은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 문화가 본격적인 다기 수요를 촉발시킨 시기 역시 일본이 한반도에 비해 약 5세기 정도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술 전파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시 동아시아 문명의 '변방'에 위치하며 섬이라는 고립적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일본에 문화와 문명, 인적 네트워크의 확산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고급 인력'이 자발적으로 변방인 일본으로 이주·정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강제적인 인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도자기 전쟁'이었다는 주장은 전쟁 과정에서 상당한 조선인이 납치되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중에 상당수의 도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최영수 2014).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을 납치한 목적에 대해서는 한일 양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민덕기 2005), 조선인 도공들이 대거 납치되어 규슈 북부 사가

현에 상당수 정착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합니다(노성환 2009). 특히 그 중에서도 이삼평(李參平)이라는 인물은 일본 아리타 도자기의 시초로서 '도조'로 불리며, 그를 기리는 기념비와 신사가 마련되어 있을 만큼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평이 백자광산을 개발하고 자기를 생산하자 도공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아리타가 일본에서도 유명한 도자기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리타초 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도조 이참평은 조선 충청도 금강 사람이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한 때에 나베시마군을 위해서 도움을 준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경장 원년 번조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개선하여 휴행하여 돌아와서 그를 귀화시킨 다음 참모장 다쿠 야스노리에게 몸을 맡겼다. 금강 사람이기 때문에 가네가에라는 성을 사용케 했다. 처음에는 오기군의 다쿠에 살면서 그가 습득하고 숙련되어있는 제도의 일을 시작하였으나, 양질의 원료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원화연간(元和年間: 1615-1623) 마츠우라군 아리타향 미다레바시에 와서 도업에 종사하여 드디어 이즈미야마에서 자석을 발견했다. 그 후 시라가와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순백의 자기를 제작한 것이다. 실로 이것이 일본에서 자기제조의 시작이다. 그 후 줄곧 그 제조법을 계승하여 오늘의 성황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이씨는 우리 아리타의 도조일 뿐만 아니라 일본요업계의 대은인이다. 그리하여 도자기업에 종사하여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이씨가 남긴 공적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有田町歷史編纂委員會 1985; 노성환 2014, 309에서 재인용)

이번 답사는 아리타-이마리 도자기의 숨결을 느껴보기 위해 사가현립 규슈도자기 문화관(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에 먼저 들러 일본 도자기의 묘미를 맛본 다음, 이삼평 묘비와 그를 모신 도잔진자(陶山神社)를 둘러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타와 함께 일본 자기 생산의 중심지인 이마리 오오카와치야마 (伊万里大川内山) 도자기 거리까지 들르는 조금은 빠듯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급해서일까, 안타깝게도 길을 잘못 든 탓에 이삼평 묘비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먼발치에서 나무들 사이로 솟아오른 묘비의 끝부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신 신사인 도잔진자는 찬찬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도공을 모신 신사라서 그런지 곳곳에 청화백자를 떠올리게 하는 도자기 조각들이 있었고, 신사 입구 기둥문 역시 다른 신사들과는 다르게 자기를 연상하게 하였습니다. 아리타 관광 협회의 가이드북 〈아리타 스타일〉(n.d.)에 따르면, 도잔진자는 1658년 무렵 건립되었으며, 기둥문은 국가 사적으로서 백자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경내의 기둥들은 도공들이 헌납한 도자기로 만들어졌고, 아리타 도자기로 만든 부적(오마모리, お守り)을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아리타관광협회 n.d.). 이처럼 '도자기의, 도자기를 위한, 도자기에 의한' 도잔진자는 다른 어떤

일본의 신사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잔진자의 백자 기둥문과 경내

전쟁을 통한 인적 교류는 폭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직접적인 기술·문화 요소를 전파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동아시아 전통 천하질서상 변방에 있던 일본의 도발은 곧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현상변경을 위한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삼성 2009).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이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안정기의 막바지에 있었던 동아시아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는 명·청 교체기라는 정치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기존 한족(漢族) 중심의 천하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사건 하나만으로 그 이후의 모든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일어난 일련의 변화 양상이 단순히 전통 천하질서의 변화를 넘어선 근본적인 동아시아 질서 변화의 맥락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17세기의 세계질서 변동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지표로서 일본 도자기의 부상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타, 문명을 잇는 도자기 네트워크의 중심지

일본의 도자기 산업은 기술 전파의 중요한 부분인 인적 요소로서 조선 도공들을 바탕으로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성장했고 나아가 유럽을 매혹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일본의 자기 산업이 유럽으로 수출될 만큼 그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사가현립 규슈 도자기 문화관에서 특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칸바라(蒲原) 컬렉션'은 에도 시기 이마리 항에서 출발하여 뱃길을 따라 유럽으로 수출된 고이마리(古伊万里) 자기를 모아 놓은 전시코너입니다. 이 문화관의 대표적인 컬렉션이기도 한데, 그 화려한 붉은색은 잠자고 있던 시각세포들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충분히 음미할 만큼의 시간은 할애할 수 없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는 도자기라고 하면 늘 익숙하게 떠올리는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아리타-이마리 도자기에 심취해보았습니다.

1) 붉은 매력에 빠지다

이번 답사의 핵심적인 질문은 도자기 생산의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자기가 만들어져서 세계 도자기 시장에서 일시적이나마 우위를 점하고, 이후 중국의 도자기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었는지 입니다. 답사 전 관련 문헌도 조사하고 인터넷으로 아리타-이마리 도자기들도 살펴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아리타-이마리 도자기들을 보는 순간 그 자체의 매력이 분명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후 답사 일정 중 다른 장소에서도 확연하게 구분해 낼 수 있을 만큼 아리타-이마리 도자기의 붉은 매혹에 푹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7세기를 전후한 세계 도자기 시장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 도자기는 중국식의 청화백자였습니다(황종례·유성웅 편 1994; KBS 2004). 전날 데지마의 전시관에서 발견했던 당대의 청화백자와 아리타-이마리 도자기를 비교해 보면, 서로 확연히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리타-이마리 도자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명한 홍색 계열의 색채는 다른 자기 양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고온의 가마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청색 계열의 경우

주로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안료는 전 세계에서도 서아시아의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고가로 수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왕실과 일부 고위층에서 소비하는 자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는 했지만 코발트 안료는 1300℃의 고온에서도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경질자기를 만들 때 색을 내기에는 쉬웠습니다. 반면, 적갈색에 가까운 산화철 안료가 아닌 보다 붉고 선명한 색채를 지닌 홍색의 안료는 만들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청색에 비해 고온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까다로운 공정을 요구했다고 보입니다(KBS 2004; 조용준 2015).

▲칸바라 컬렉션의 붉은 매력과 사랑방 5기

▲칸바라 컬렉션 중 일부

▲데지마 전시관에서 발견한 17세기 네덜란드동인도회사(VOC) 표시가 있는 청화백자

물론 위의 이유뿐만 아니라 색채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문화적 상징, 수요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았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

동안 세계 도자기 시장에서 아리타-이마리 도자기와 같이 붉은 매력을 발산하는 상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자기는 생활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한 사치품 또는 위치재(positional goods)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유럽의 지배층들이 새로운 형태의 자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컬렉션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예술사조나 미술양식 등을 살펴보면, 당대의 동양에서 유행하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리타-이마리 도자기의 붉은 매력이 유럽인들의 심미안을 자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상상하다

1636년은 17세기 동아시아 질서 변동의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숭덕제(崇德帝, 후금의 제2대 칸이자 청의 황제, 재위 1626년~1643년)가 조선을 침공한 병자호란이 발발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와의 교역과 소통의 통로로 작동할 데지마(出島)를 건설했습니다. 본격적인 명·청 교체기의 한 가운데에서 한반도는 또 한 번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막부 하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기를 찾으면서 새로운 파트너로서 서양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대륙에서는 본격적인 혼란과 군사적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문명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문화적 거리를 두고 있던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정비된 국내 정치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명 실험'을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데지마라는 제한적이지만 비가역적인 소통 채널 및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서양이라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서구 문명을 관찰하면서 조금씩 수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전날 데지마에서 네덜란드 인들은 건너편을 볼 수 없지만 반대로 건너편 건물의 일본인들은 그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구조의 건물을 통해 이러한 실험의 시도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혼란과 안정의 교차점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자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도자기 네트워크' 속에 편입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자기가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기 시작한 원인을 단순히 일본식 도자기의 기술력이나 디자인이 그 당시 존재했던 그 어떤 도자기보다도 우위에 있었다는 점에서만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보다 복잡한 국제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자기는 유럽에서 상당한 고가의 상품으로 비단과 함께 오래 전부터 유럽 왕실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존재해오던 상품입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동양으로부터 온 하얀 도자기를 '백금'이라고 부를 만큼 귀중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조용준 2015). 그런데 17세기경 중국의 해금정책과 명·청 교체기로 인한 혼란으로 핵심적인 도자기 생산지였던 경덕진(景德鎭)이 마비되어 중국산 도자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자 이의 대체품을 찾는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Lim 2011; Gunn 2011, 273-75). 즉, 반드시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일본 자기가 공급되어 '초과수요'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인들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도 일본산 도자기가 널리 소비되는데 좋은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Lim(2011)은 일본이 유럽인, 특히 네덜란드인들의 취향에 맞추어 '중국 스타일'의 자기를 생산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당시의 여러 도자기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중국식의 모사에만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일본풍'의 도자기를 새롭게 선보인 점이 일본 도자기가 중국산 도자기의 훌륭한 대체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품 자체의 매력에 더해, 일본 자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를 매개로 하여 당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타고 유럽으로 전파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마리 항에서부터 나가사키로 이동한 도자기들은 VOC 무역네트워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 남쪽, 케이프타운을 거쳐 유럽으로 수출되었습니다. 1659년과 1660년 사이에는 처음으로 일본 도자기가 네덜란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Gunn 2011, 278-84). 사가현립 규슈 도자기 문화관에 전시되어 있는 밑의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VOC 무역 네트워크의 가장 동쪽 거점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문화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기존의 도자기, 특히 한반도의

도자기에 비해 일본의 도자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본이 또 다른 자기 생산국이었던 조선과 같이 유럽까지 이어지는 무역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본에서 생산된 자기는 국내 왕실이나 고위층 내부에서만 소비되거나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동북아시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교역되는 것에 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이마리의 길", 일본 자기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일본, 문명의 선도자 또는 중간 전파자

18세기 유럽에서 도자기 요(窯: 가마)가 경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으나, 그로부터 3세기가 지난 20세기에는 유럽의 자기 산업이 오히려 종주국인 중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김재규 2000; Finaly 2010). 모방에서 시작한 유럽의 자기가 스스로의 가치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표준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재규(2000)에 따르면, 유럽의 자기 산업은 이미 가지고 있던 스테인드글라스나 에나멜 공예의 발색 비법을 바탕으로 동양의 자기 유약 비법을 빠르게 습득하면서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마이센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자기는 이후 유럽 각지의 브랜드를 내걸고 오히려 자기의 종주국인 중국에까지 역수출되기에 이릅니다. 특히 글로벌 도자기 네트워크에서 동서양을 연결해주던 네덜란드가 중국과 일본의 자기를 모방하여 만들어낸 '델프트 블루'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조용준 2015). 중국의 자기 생산이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파된 양상과 유사하게, 기술적 여건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자기 생산을 갈망하는 경제적·문화적인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였기 때문에 모방에서 시작한 유럽의 자기 생산은 종주국을 압도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17세기를 기점으로 자기 시장에서 문명의 표준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유럽으로 바뀌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질서 또는 국제정치질서의 변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 그리고 19세기를 거쳐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마치 최첨단 도자기의 생산지가 중국에서 일본, 다시 유럽으로 옮겨간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질서 중심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상로를 통해 소위 '지리상의 발견'부터 식민지배를 하기까지 유럽의 열강들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새로운 공간으로 진출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세계(global)'라는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물리력과 금력(경제력)을 앞세운 서양 열강들이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서양 근대식의 국제정치질서가 기존의 천하질서 위에 스며드는 형태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방의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 근대국가 모델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힘의 기준,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길러 경쟁하는 근대 국민국가 게임에서 우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공간에서 조선을 식민지로 발판 삼아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함으로써 일본발 동아시아 질서 구상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변방에 있던 일본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도전한 분야에서 처음에는 상당한 선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도전이 좌절되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도자기 네트워크에서 중심을 차지할 뻔하다가 결국은 유럽에게 중심의 자리를 내 준 것처럼, 19세기와 20세기 초 동아시아 질서 건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패전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양분되는 냉전 질서의 지역적 투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버랩은 당시 최첨단 지식·기술의 결정체였던 도자기가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선행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한편, 왜 일본은 끝까지 자신들의 도전과 꿈을 밀어붙여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은 과연 문명의 선도자인지 아니면 문명의 전환기에 과도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전파자에 불과한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본의 위상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 이마리 오오카와치야마 도자기 거리 지도

▲ “이마리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다”

이번 아리타-이마리 도자기 마을 답사의 가장 아쉬운 점은 다섯 시 전후에 대부분의 상점이나 전시관들이 문을 닫아 제대로 보려면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찬찬히 둘러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마리 오오카와치야마 도자기 거리의 경우, 일정 상 저녁 여섯 시를 넘겨서 도착했더니 모든 상점이 이미 영업을 끝낸 상태라 고즈넉한 마을의 모습만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를 누비면서 한편으로 아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마리의 향기를 한껏 자유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즈넉한 마을에서부터 시작한 문명 표준의 이동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바다 건너 유럽으로, 또 다시 큰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이동하였는지,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회귀'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를 곱씹으며 다음 번에는 더욱 일찍 와서 여러 공방들도 살펴보겠다는 기약을 남기고, 도자기 마을답게 도자기로 만들어진 마을의 지도와 풍경들을 가슴 한 가득 안고 돌아섰습니다. ■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2010.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서울: 경인문화사.

김재규. 2000. 《유혹하는 유럽 도자기》. 파주: 한길아트.

노성환. 2009. "일본 사가현의 조선도공에 관한 일고찰." 〈日語日文學〉 41, 283-306.

_____. 2014. "일본 아리타의 조선도공 이참평에 관한 연구." 〈日語日文學〉 62, 293-313.

이삼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도 한반도》. 파주: 도서출판 한길사.

전국역사교사모임. 2013. 《처음 읽는 일본사: 덴노·무사·상인의 삼중주, 일본》. 서울: 휴머니스트.

조용준. 2015. 《유럽 도자기 여행: 북유럽 편》. 서울: 도서출판도도.

최영수. 2014. 《400년 조선도공의 눈물: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었다》. 서울: 사람들.

사가 현 관광 홈페이지 (http://www.welcome-saga.kr/)

아리타 관광 협회 (http://www.arita.jp/)

일본 도자기 탄생·아리타 창업 400주년 사업 공식홈페이지 (http://arita400.com/) (검색일: 2015.06.10.)

아리타관광협회. n.d. 《아리타정 관광 가이드 맵: 아리타 스타일》

KBS. 2004. <KBS 스페셜: 도자기 1-6편>

Finlay, Robert. 2010. *The Pilgrim Art: Cultures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____. 1998. "The Pilgrim Art: The Culture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Vol.9 No.2: 141-187.

Gunn, Geoffrey C. 2011. *History without Borders: The Making of an Asian World Region, 1000-1800*.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Lim, Tai Wei. 2011. "Re-centering Trade Periphery through Fired Clay: A Historio-graphy of the Global Mapping of Japanese Trade Ceramics in the Premodern Global Trading Space." *Sino-Japanese Studies* 18.

7장

시모노세키에서 이홍장을 만나다
_일청강화기념관

임성우
칭화대학교 대학원

이홍장(李鴻章)이 시모노세키(馬關)에 도착한 그 날

시모노세키로 향하는 세 번째 날, 우리들은 일청강화기념관을 답사하였습니다. 첫째 날의 뜨거웠던 분위기는 둘째 날에 절정에 달하였으며, 그 분위기는 셋째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은 시모노세키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가 매우 작은 곳입니다. 일청강화기념관을 사전 답사하기 전에 이홍장의 꿈, 삶, 앎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홍장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던 1895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의 발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일청강화기념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무츠와 이토의 앎, 삶, 꿈'에 대해서는 황은지 양이, '청일전쟁의 역사 소개 및 청나라의 청일전쟁 패배에 대한 필연성' 에 대해서는 제가 맡아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일청강화기념관으로 향하던 도중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홍장은 이

바다를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조국을 구하기 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인 이경방과 함께 시모노세키로 온 뒤, 저 멀리에 있는 조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홍장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왜 청은 한낱 오랑캐에 불과했던 일본에 무기력하게 졌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 질서를 주도했던 중국이 일본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잃어버리면서 더 이상 강국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통감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홍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따라서 사랑방 5기 일청강화기념관 답사의 핵심은 바로 이홍장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일청강화기념관 입구

청일전쟁의 과정

선전 포고 없이 가오슝(高陞)호를 공격한 '풍도해전'을 시작으로 청일전쟁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풍도해전 발발 이후, 일본군은 '성환전투'를 거쳐 평양으로 거침없이 진격하였습니다. 이때, 《이홍장전》을 저술한 양계초(梁啓超)는 '평양전투' 이전에 이미 일본의 기력이 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홍장이 이를 이용하여 선제 공격을 하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홍장은 끝내 일본군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한해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청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일본은 재정비를 끝내고 평양으로 진격하여 청군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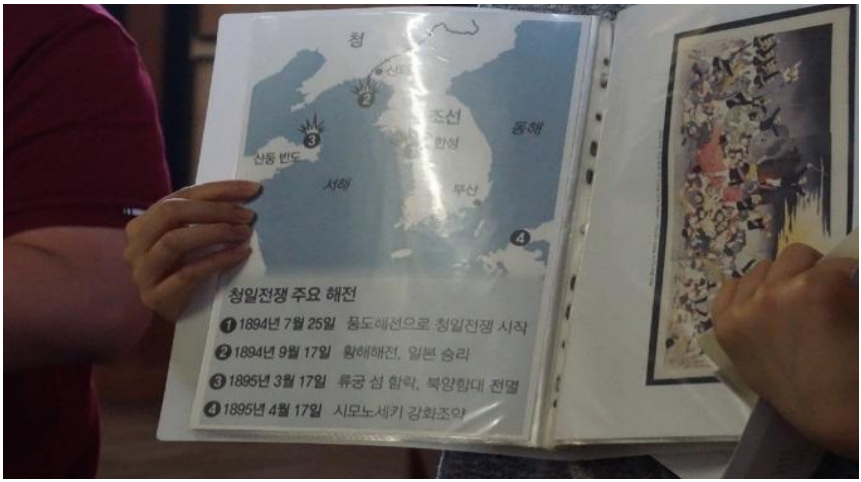
청일전쟁의 승산이 일본군에게 유리하게 된 '황해해전'에서는 이홍장이 서구 무기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편성한 북양함대마저 일본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홍장은 양무 운동을 실시하면서 서방 국가가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유에는 성능이 뛰어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서방 국가로부터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또 서양식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홍장은 '양'에만 치중했을 뿐 '질'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우수한 무기의 양은 많아졌으나, 이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습니다. 또 새롭게 편성된 군대를 총체적으로 이끌 총 지도자가 없는 상황과 그나마 있는 지도자의 우매함과 무능함은 일본군에 대한 청군의 대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에 밀려 치원호, 초용호 등 5척의 배가 침몰하고 850여 명이 전사하는 등 황해해전에서 패배한 청군은 사실상 일본군에게 전세를 내주게 됩니다(梁启超 2009).

황해해전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중국 본토로 진입하여 뤼순(旅顺)을 점령하였는데, 뤼순에서 일본군은 청의 국민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군이 학살한 것이 아니며, 뤼순에서 희생당한 사람의 대부분은 민간 복장을 한 청군으로, 청군이 민가에 숨어 일본군을 공격하기에 그에 대한 보복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 대해 연구하는 중국의 대표적 학자인 치치장은 뤼순 대학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군의 학살 대상은 누구였으며, 얼마나 희생당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민간 복장을 한 청군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었기에 오인하여 살해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일본인의 일기에서 '매 가정마다 열 명 중 적어도 두 세 명의 시체는 노인, 영아가 있었으며, 백발의 부부가 손을 잡고 쓰러져 있었다(戚其章 2012, 562)'고 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군이 오인해서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그는 반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치장은 희생자 수를 축소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계산이 잘못되었으며, 2,500명이라고 발표한 일본군과 달리 실제 뤼순에서 희생당한 사람의 수는 18,30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치치장은 뤼순 대학살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군이 무츠의 '평화외교'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戚其章 2012, 560-563).

중국인이자 일본 사학자인 종저야는 무츠 외교와 일본의 뤼순 대학살에 대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저야는 일본 뤼순 대학살의 유래를 이민족이 황하문명을 유린한 것에서 찾고 있는데, 즉 뤼순 대학살이 청, 즉 만주족의 전쟁 문화와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청의 역사관으로는 전쟁에 패한 자는 승자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전쟁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뤼순 대학살은 마치 만주족이 한족을 유린하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모습과 같으며, 뤼순 대학살은 청과 일본 양국의 야만성이 그대로 드러난 역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宗泽亚 2014,376-377).

어찌 되었든 일본은 뤼순 대학살 이후 산둥 반도에 있는 웨이하이 요새를 함락시키고 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조약을 협상하는 도중에 일본은 중국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타이완의 팽호열도를 공격하여 순식간에 함락시키고 청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청년에게 이홍장이 피습을 당한 이후,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면치 못하였으며, 결국 수정된 조약안으로 청과 협상하여 1895년 4월 17일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일전쟁의 주요 해전

시모노세키 조약, 이홍장의 악전고투

청일전쟁의 패배는 이홍장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수십 년 간 훈련을 시킨 군사와 새로 구입한 신식 무기가 있으며, 비록 예산이 부족하고 신의 구상을 모두 실현하지는 못하지만, 전투에 적을 임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황제께서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梁启超 2009, 64)'고 하면서 매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양식 무기를 도입하고 훈련 역시 서양 국가에서 실시한 대로 진행했으니 이홍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홍장이 자신했던 회군과 북양함대는 일본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홍장의 부국강병의 꿈과 양무 운동으로 얻은 명성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홍장은 일본과의 휴전 협정을 위해 직접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1895년 3월 20일, 중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伊藤博文)는 1 차 회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홍장은 정전 협정과 동시에 화약을 체결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지만, 이토는 이홍장이 가지고 온 칙서에 황제의 친필 서명이 없음을 문제 삼아 협정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홍장은 이에 당황하며 '만약 우리 국가(청국)가 정성껏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를 파견하지 않았을 것이며, 내가 강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오(戚其章 2012, 399).'라고 답하였습니다. 이토는 전쟁에 승리한 승전국 입장에서 당당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였으며, 반면 이홍장은 패전국의 대표로서 고개를 숙이고 일본의 입장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천하 질서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장면을 1 차 회담부터 보여주었습니다.

2 차 회담과 3 차 회담에 걸쳐서 일본은 천진-산해관 간의 철도를 일본이 관리하며, 일본의 청 주둔비를 청이 부담할 것이며, 대만을 할양할 것을 중국에게 요구하며 이홍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홍장은 이러한 요구에 가혹함을 호소하였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홍장이 확답을 하지 못하자, 일본은 팽호열도(澎湖列島)를 공격하여 청군을 연파하고 마공성에 팽호열도 행정청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戚其章 2012, 405-408).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으니, 이홍장이 잡화점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일본의 한 청년이 이홍장을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이토와 무츠(陸奥 宗光)는 이홍장에게 휴전 협정을 제의하면서 3 월 30 일에 <중일정전협정>을 체결하였고, 4 차 회담은 4 월 1 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은 1) 조선이 자주국임을 청이 인정할 것, 2) 선양(盛京)의 남부, 대만, 그리고 팽호열도를 일본에게 할양할 것, 3) 3 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4) 순톈푸(順天府), 샤스(沙市), 샹탄(湘潭), 충칭(重慶), 우저우(梧州),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등 7 개의 도시를 추가로 개항할 것 등을 포함한 조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일본은 이홍장의 주장과 청 정부의 주장이 매우 완고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화 협의가 길어져서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토와 무츠는 이홍장의 아들인 전권대신 이경방을 찾아서 '현재 청의 대신들은 일본이 승전국이며, 중국이 패전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5 차 회담에서는 배상금을 2 만 냥으로 줄이고,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내릴 것을 강요합니다. 이홍장은 6 차 회담을 통해서 조약안을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압박에 이홍장은 결국 굴복하고, 4 월 17 일에 청과 일본은 <중일강화조약>, 즉 우리에게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익숙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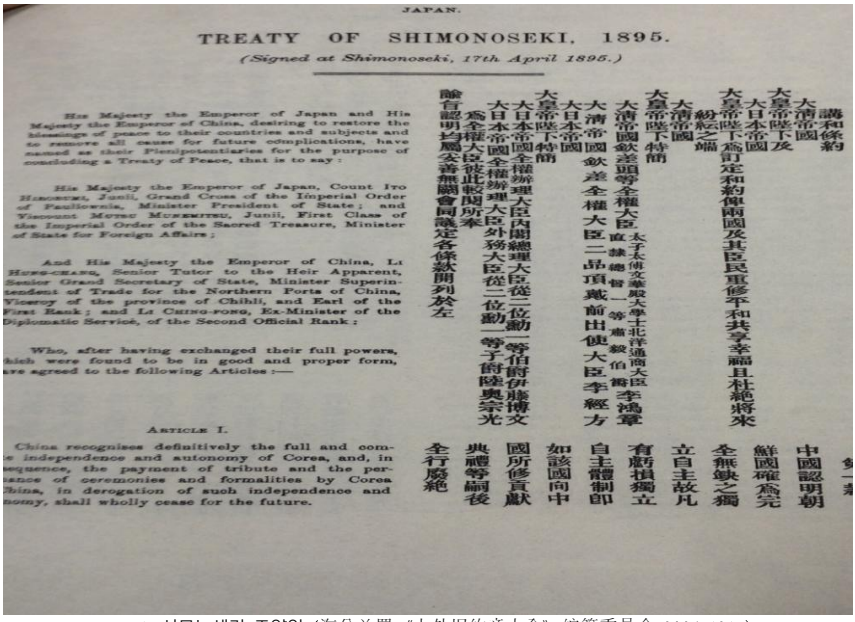
1. 조선은 명백한 독립 국가이다.

2. 중국은 요동반도, 대만과 대만에 부속된 도서를 할양한다.

3. 중국은 2 만냥을 일본에 배상금 및 일본군 주둔비로 지불하며, 8 차에 걸쳐서 완납한다.

4. 일본인은 중국의 통상 항구에서 무역의 권리를 가진다.

5. 샤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를 개방한다(戚其章 2012, 409-422).



JAPAN.

TREATY OF SHIMONOSEKI. 1895.

(Signed at Shimonoseki, 17th April 1895.)

Article I.

▲ 시모노세키 조약안 (海关总署《中外旧约章大全》编纂委员会 2004, 1215)

이홍장은 시모노세키 조약 협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패전국의 대표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1 차 회담에서 이홍장은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국이며, 서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립 관계에서 서로를 중시하며, 계속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양국의 관계에 좋지 않다'고 밝히며 이토에게 마치 선처를 부탁하는 것 같은 어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토는 천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이홍장은 인구가 많고 다양한 행정구역이 있어서 개혁을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청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는 유럽의 육해군 작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일본이 중국을 깨어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宗泽亚 2014, 408-409). 양계초에 의하면, 이홍장은 유럽을 방문했을 때 유럽인들이 답하기 꺼려하는 나이와 재산의 정도에 대해 묻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조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오만한 기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존감이 매우 강했고, 서방인에 대해서도 편견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梁启超, 2009, 155-156). 그러나 이토를 대하는 자세로 보면 실제 이홍장의 모습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홍장에게 시모노세키 회담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회담이었을 것입니다.

청일전쟁 이전부터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까지, 심지어는 그 이후까지, 이홍장은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 동안 홀로 부상을 입고 온전치 못한 몸으로 회담에 임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조약 안에 하루 빨리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조정에서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청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홍장을 오히려 책망하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인 이경방은 전권대신임에도 불구하고 이홍장에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여 이토와 무츠의 협박에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홍장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홀로 '부국강병'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대가 이홍장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했고, 그 꿈은 일본에 의해 무산되어 이홍장이 숨을 거두는 1901 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차 청의 부국강병에 대한 꿈과 희망은 사라져 가게 됩니다. 제당(帝黨)과 후당(后黨)으로 나뉘어진 청 왕조의 분열은 청일전쟁 이후 무술개혁을 실패로 이끌었으며, 의화단 사건과 신해혁명이 각각 1900 년, 1911 년에 발생하면서 청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 시모노세키 조약 회담 장면

▲ 일청강화기념관 내에서 회담장을 재현한 것

이홍장의 과오

이홍장은 양무 운동을 이끌면서 상하이(上海)에 외국어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미국과 일본으로 관리들을 유학 보냈으며, 특히 독일에는 군관을 보내 독일의 해군, 육군의 무기와 전술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철갑선을 구입하고 해군 학교를 톈진(天津)에 개교하는 등 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홍장에게도 청일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은 일정 부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홍장은 무슨 과오를 범하였던 것일까요?

먼저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이홍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나치게 외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홍장의 모습은 중국을 열강 간 이권 다툼의 장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한 중국은 랴오둥(遼東)반도를 할양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와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오저우(膠州)만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오저우는 원래 러중밀약에 의해서 러시아의 세력 범위 내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독일이 점령하자 청은 러시아와 다시 조약을 맺어서 뤼순과 다롄(大連) 만을 할양합니다. 이러한 열강의 움직임이 있자 영국 또한 세력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청에게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요구했습니다.

또 차관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자청한 프랑스가 광저우(廣州) 만을 99 년 간 빌리게 되자 영국은 이에 대응하여 구룡(九龍) 반도를 99 년 간 빌리게 됩니다. 이홍장이 구룡 반도를 빌려주는 대신 산 위에 포대를 만들 수 없다고 하자, 영국공사는 청이 프랑스에게 광저우 만을 빌려주었기에 홍콩이 위험해졌다고 말하면서 프랑스와의 조약을 철폐해야 영국도 물러나겠다고 대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홍장은 침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얼마나 약한 국가였고 열강에 대응할 힘이 없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양계초는 외국에 의존하는 이홍장의 외교에 대해 비판하며 자립해야 자신의 힘을 키워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양계초의 일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梁启超 2009).

군사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도층이 매우 무능하고 우매하였다고 양계초는 지적합니다. 비록 서방 국가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이 훈련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없이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훈련 시스템에 적합한 지도자가 없다 보니, 결국 이홍장의 군대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군사력의 약화는 결국 청이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기의 양은 계속 늘어났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무기의 성능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무용지물과

다름 없었습니다. 양계초는 이미 총이 망가졌고, 탄이 가짜인 상태였으며, 해군이 쾌속선과 화포에 대한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梁启超 2009).

세 번째로는 군기(軍氣)에 대한 내용으로, 종저야의 논지에 따르면 일본은 '국민, 국가'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천황'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국가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사상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을 통합시켜 군, 민, 국가가 일체화가 된 '천황의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宗泽亚 2014, 159-160, 319). 반면, 청의 군대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문의 이익을 제일로 삼았고 국가의 이익은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북양함대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에도 청의 군대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성 들여 조직한 "자가군(自家軍)", 즉 자신의 가문을 위한 군대를 지킬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결사 항전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宗泽亚 2014, 319). 청군은 개인의 이익을 먼저 중시하였기 때문에, 천황이라는 정신적 지주로 단결한 일본군의 사기를 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앞서 언급한 것이지만 평양 전투에서 일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격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이 역시 청군이 패배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일전쟁과 역사의 교훈

청일전쟁을 책임졌던 회군과 북양함대는 모두 이홍장이 양무 운동을 실행하면서 편성한 군대였으며, 시모노세키 조약 역시 이홍장에 의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이홍장은 그만큼 외교와 국내 정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오는 국제적, 국내적인 상황과 어우러져 결국은 청을 몰락의 길로 이끌었으며, 저는 청의 쇠망사가 곧 이홍장의 쇠망사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영광의 지위를 누려온 중국에게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잃어버린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청일전쟁 직후에는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중국은 1920 년대부터 지금까지 자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반성함으로써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역사 분석에서의 1 차적 자료의 수집과 체계화, 그리고 당시의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중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1895 년 시모노세키에서 이토와 무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강화를 요구하던 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AIIB 를 통해 미국의 TPP 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문 이외에도 문화, 군사적인 행보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층의 해외 순방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120 여 년 전 열강들의 멸시를 받으며 약소국으로 취급 받던 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뒤에는 1842 년 아편전쟁에서의 패배와 1894 년 청일전쟁의 패배를 통한 패권의 상실이라는 쓰라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용심양고(用心良苦)라는 중국 성어가 있습니다. 매우 고생이 많음을 비유하는 성어인데, 중국은 지금까지의 지위, 어쩌면 150 여 년 전까지만 해도 향유하고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오르기 위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극복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일전쟁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한 만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 용심양고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는 것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청일전쟁 연구 동향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과연 역사를 거울삼아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청일전쟁을 연구할 때 동학 농민 운동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청일전쟁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단지 한국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홍장 평전에 대한 내용은 프리스마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리훙장 평전(박희성 2013)'이 전부입니다. 이홍장의 고민과 그의 꿈, 그리고 그 꿈의 몰락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지 고찰하는 데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충공전집(李文忠公全集)》(李鴻章 1921) 등은 도서관을 찾아보니 원본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번역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문충공전집》은 이홍장의 심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이홍장이라는 인물은 한국 학계에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이든지 역사 속에서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며 실로 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믿고 싶습니다.

시모노세키에 당도한 날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EAI 사랑방 사람들은 우리의 발제를 진지한 태도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 안에 이홍장이 쓴 "해악연무(海岳煙霧)"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역하자면 바다와 산악에 연기와 안개가 자욱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홍장은 청의 현실과 미래를 이 네 글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당시 청의 미래는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을 바라볼 수 없고 암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안개만 걷히면 청도 발전할 수 있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청일전쟁으로 인해 안개는 더 자욱해졌고, 중국은 이후에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안개를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연구해 보는 것이, 즉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 이홍장의 글씨(해악연무)

참고 문헌

양계초. 2013..《리홍장 평전》. 박희성, 문세나 역. 서울: 프리스마.
海关总署. 2004.《中外旧约章大全》编纂委员会，中外旧约章大全（下）. 北京： 北京海关出版社.
梁启超. . 2009.《李鸿章传》. 雾满拦江 역.北京： 陕西师范大学出版社.
戚其章. 2014.《甲午戰爭史》. 上海 ： 上海人民出版社.
宗泽亚. 2014.《清日戰爭》. 北京 ： 北京聯合出版公司.

8장

무츠 무네미츠 외교의 신화와 현실
_일청강화기념관

황은지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이야기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1844~1897).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고 그가 품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나는 과연 그를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것이 제가 사랑방 5기 일본 답사 준비 과정 내내 가졌던 문제 의식이자 제 나름대로 풀어내야 할 과제였습니다.

시모노세키는 히로시마-오사카-교토-도쿄로 이어지는 산요도(山陽道)의 기점이자 혼슈에서 규슈로 넘어가는 주요 간선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에도 시대에는 해운 무역선의 기항지로서, 개항 후에는 국제적 항구로서 번영했습니다. 혼슈와 북규슈를 잇는 간몬교(関門橋) 위를 달리던 버스에서 시모노세키를 내려다 보고 있자니 위풍당당한 군함들과 무역선들이 가득하던 그 시절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항구 도시에 위치한 일청강화기념관은 일본이 1895년 4월 중국의 전권대사 이홍장을 일본

땅으로 소환하여 일청강화조약을 맺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일청강화기념관을 찾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입을 꼭 다물고 정면을 응시하는 두 인물의 흉상입니다. 바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전권을 부여 받고 청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당시 총리 이토 히로부미와 외상 무츠 무네미츠입니다. 답사 당일 하필 가랑비가 내려 우중충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뚝 선 흉상들은 마치 대국 중국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소리 없이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인물로 평가되지만, 이토 내각의 외무대신이었던 무츠 무네미츠 역시 일본 외교를 논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츠의 동상은 일청강화기념관 뿐만 아니라 도쿄 치요다 구에 위치한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많은 외무대신들이 일본 외교사에 이름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무성에 들어서자마자 만나게 되는 인물은 무츠인 것이며 일본에게 그의 업적이 갖는 의미와 상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일전쟁(1894~1895) 전후의 무츠 외교를 그의 저서인 《건건록》(蹇蹇錄)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건건록》은 무츠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실행했던 조선 파병을 기점으로 청일전쟁 개전에 이르기까지의 청일 양국 간 외교교섭과 구미 각국과의 교섭, 조선의 내정 개혁 문제, 그리고 일청강화조약 이후 삼국간섭의 경위 등을 일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집필서입니다. 즉,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는 데에 대한 일본 내 여론

및 주변 열강들의 반응과 일본 정부 측의 대응, 그리고 한중일 삼국 간의 역학적인 외교 구조와 이해관계 등을 무츠 자신이 스스로의 경험과 문건을 토대로 회고한 일종의 외교 비망록인 것입니다. 저는 무츠의 삶, 앎, 꿈이 녹아든 위 저서를 통해 왜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의 침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했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왜 일본은 청일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판단하여 국가의 명운을 걸면서까지 청나라와 맞붙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청일전쟁을 단순히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집권을 놓고 다툰 전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그것이 전후(戰後) 국제 질서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저는 과연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삼국간섭으로 인해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고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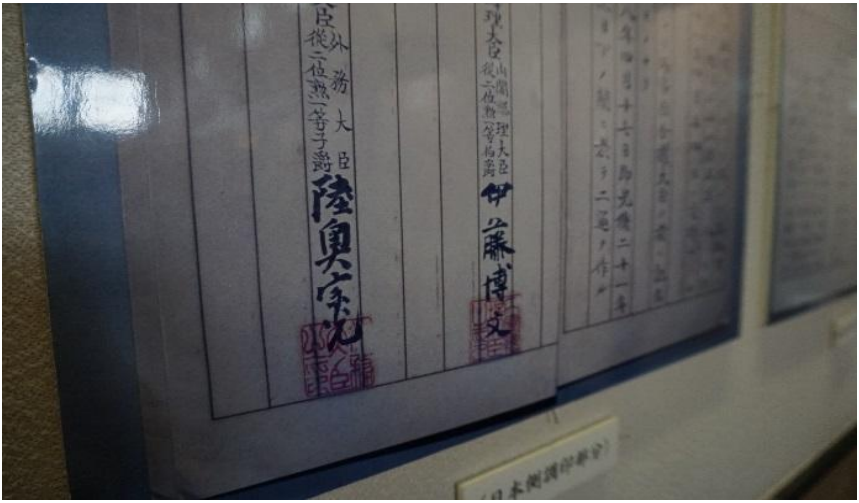
▲ 일청강화기념관의 모습

▲ 일청강화기념관 옆 이토 히로부미(左)와 무츠 무네미츠(右)의 흉상

한쪽에서는 무츠를 일본 외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서 칭송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제 침략 외교의 첨병이라고 비난한다면, 저 스스로는 무츠의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일청강화기념관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답사를 준비하면서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무츠 외교가 세력균형적이었는가 제국주의적이었는가, 또는 방어적이었는가 공격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청강화조약 비준 교환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건건록》에 기록된 무츠의 회고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무츠 외교의 신화와 현실을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무츠 무네미츠와 이홍장의 만남

간몬교와 시모노세키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시내 언덕에는 일청강화기념관과 함께 여관 겸 복어요리 전문점인 춘판로(春帆楼)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게에 '봄 바다의 배'를 의미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줬을 정도로 이곳을 즐겨 찾던 이토 히로부미는 청일전쟁을 매듭지을 무대로 춘판로를 선택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협상은 일본이 청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청나라에게는 매우 굴욕적이었을 것입니다.



▲ 무츠 무네미츠의 날인

▲ 이홍장의 날인

세간의 예상을 깨고 청나라는 1894년 9월 중순에 평양을 일본에 내어 주고 황해전 등에서 연패하며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일전쟁의 승기를 일본이 잡게 되며 청나라는 강화 회담 성사를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4년 11월, 청나라는 미국을 통해 조선의 독립 및 전쟁에 대한 배상을 강화 조건으로 삼아 일본에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청나라에서 파견한 사절들의 지위나 자질을 보았을 때 청나라가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본은 청나라가 전권 변리 대신의 성명과 직위를 먼저 통보할 때까지 자국 측 대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으며(치치장 2005, 441),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청나라의 강화 사절인 장음환과 소우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첫 번째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것은 매우 전략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홍장과의 협상을 원했을 뿐 아니라, 전권 대표의 부적격성을 빌미로 협상 시기를 늦춰 일본이 류공다오를 점령할 때까지 기다린 후 협상을 자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서구 열강들의 간섭을 우려하여 회담의 조건을 결국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치치장 2005, 440). 협상 장소의 선정 문제에서도 역시 상하이나 옌타이를 원했던 청나라에 대해 일본은 자국 본토에서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정전 사안에 대해 청일 양국의 전권 대표들이 만나

협상을 한 후 결정하자며 청나라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1895년 3월 19일, 청나라의 강화 사절단을 태운 배가 시모노세키항에 정박했고, 그 이튿날부터 춘판로에서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본 측은 영토 할양과 일본의 군비에 대한 배상금으로 무려 백은 3억 냥을 지불하라는 굴욕적인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일본에 의한 강제 영토 할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청나라로서는 배상금 1억 냥이 상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와중 3월 24일, 제3회 시모노세키 담판을 마친 이홍장이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강화 회담에 반대하는 한 청년에게 저격을 당했습니다. 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는 왼쪽 눈 아래 총알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4월 10일 재개된 회담에서 이홍장은 비록 영토 할양 요구는 수용했지만, 자신에 대한 괴한의 암살 기도를 빌미로 애초에 일본이 요구했던 전쟁 배상금을 3억 냥에서 1억 냥으로 삭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홍장은 본국으로 귀국한 후 매국노로 몰려 관직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한 때 청말의 주요 외교 문제를 장악했던 영웅이 순식간에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국은 같은 해 4월 17일에 11개조의 일청강화조약을 조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주요 강화 조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확인할 것.

一. 청국은 랴오둥반도와 타이완 및 펑후섬 등을 일본에 할양할 것.

一. 청국은 일본에 배상금 2억 냥을 지불할 것.

一. 청국의 사시, 중경, 소주, 항주 등 네 곳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양자강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을 용인할 것.

一. 청국은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할 것.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메이지 초기부터 추구해 온 국권 확장을 실현할 수 있었고 거액의 배상금으로 군비 확장 자금을 확보한 것은 물론, 서구 열강과 동등한 통상 특권까지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판로 맞은 편의 좁은 언덕길에는 '이홍장로'라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이 길은 이홍장이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후 대로를 피해 회담장과 숙소를 오가기 위해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으로만 접했던 이홍장로를 실제로 보니 두 사람이 겨우 발 맞추어 걸을 수 있을 만큼 폭이 좁았고, 언덕 등성이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초라한 모양새는 마치 백여 년 전에 중국이 일본에게 당해야 했던 굴욕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 일청강화기념관에서 보이는 이홍장로

▲ 이홍장로 표지판

일본은 세력균형적이었는가 제국주의적이었는가

앞서 밝혔듯 일청강화조약은 전승국 일본과 패전국 중국이 맺었던 것으로서, 청일전쟁은 중국이라는 문명에 마침표를 찍었던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추측건대, 천하질서를 주도하던 중국이 천하질서의 범주에 포함조차 되지 않던 야만국 일본에게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서구 세력에게 굴복한 것보다 더 무참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청일 간 알력 다툼이 전쟁으로 확대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조선의 내정 개혁이나 청한종속 문제는 차치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조선에서의 세력 경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로서 정치 및 법적 제도, 문학, 종교 등 모든 분야의 문명적 근본을 확립한 선진국의 위치에 있었고, 일본은 언제나 후진국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며 서구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확장되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국가 발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여전히 전통적 질서를 고수하고 내외의 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혁을 꾀하지 못했기에 언젠가는 두 국가 사이에 일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연 청일전쟁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며, 어떠한 시선으로 국제 형세를 파악하고 대응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명분: 조일수호조규

무츠는 청일전쟁의 근본적이자 주요한 원인은 바로 청나라와 조선의 종속 관계에서 야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반(半)강제적으로 점차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2조로 구성된 조일수호조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①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제2조)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③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④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 (제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무츠가 특히 강조한 점은 조선이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제1조가 조일수호조규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이웃 나라로서 조선의 내정개혁과 자주를 지지하는 반면, 청나라는 “여전히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지 결코 하나의 독립된 왕국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 전후 모순된 속국론만을 주장하며 “청국이 조선에 대해 종주국으로서의 공명심을 가지려 하면서도 내치, 외교 등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함은, 종주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무네미츠 1896, 43)”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며 비난합니다.

무츠는 이에 대한 하나의 실례로서 1855년 영국 정부가 조선 영내의 거문도를 점령했던 ‘거문도 사건’을 듭니다. 거문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러 양국은 각각 그들의 이익을 보증해줄 것을 청나라에 요구합니다. 이렇듯 그들은 중대한 외교 문제를 담판하는 와중에서도 정작 피해를 입은 조선이 아닌 청나라가 조선 문제의 책임자라는 듯 청나라만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무네미츠 1896, 137-138).

그러나 조일수호조규 제1조는 표면상으로는 조선의 권리를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일본의 진정한 숨은 의도는 국제법상 조선이 독립적인 자주국임을 확실히 해 그것을 명분삼아 중국이 조선에게 미치는 배타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려 함이었습니다. 《건건록》에서 무츠는 일본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되도록이면 현재의 평화를 파괴하지 않고 국가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무네미츠 1896, 49)”을 찾으려 했으며, 단지 국제공법상 규정된 바를 따랐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츠가 지속적으로 조선에 훈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방어적 세력균형을 도모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선이 청일 패권 쟁탈의 무대가 된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대륙까지 세력을 뻗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일본은 청일수호조규 이후 계속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중국과 오랜 기간 군신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청 간 특수관계에서 조선을 떼어내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형식상으로는 조선에게 내정개혁을 권고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혁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일전쟁 당시 주한일본공사관 일등 서기관이었던 스기무라 후카시는 그의 저서 《재한고심록》에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전(開戰)의 구실을 만들려 했던 무츠의 비밀 훈령을 언급합니다. 훈령을 접수한 공사관은 조선 문제의 해결을 독립속방문제와 내정개혁문제로 구분하고 조선 정부가 어느 쪽을 택하든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떼어낼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위의 방안을 고려하여 채택된 내정개혁 강목에 관해 조선 정부 측 개혁조사위원과 일본 측 공사가 남산에 있는 노인정(老人亭)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정 회의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개혁안에는 동의하지만 일본군이 조선에 파병된 이래로 백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기에 개혁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일본군의 철수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계획대로 일본 공사는 1894년 7월 16일 조선 정부의 확답을 받자마자 즉각 공문을 보내 회신하였습니다. 스기무라

후카시는 위 공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지금까지 일본은 조선과 우의를 가지고 조선을 위하고 동양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친절하게 내정개혁을 권고하였으나, 조선 정부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친절을 베풀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일본의 이해나 권리에 관한 일은 가차없이 결행하고, 조선의 이해에 관한 것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조선 정부가 이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스기무라 1904, 115).

이 밖에도 일본 공사관은 경부전신선의 불편을 제기하며 조선 정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전신선 가설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정개혁 강요에 대해 조선 정부가 거절 의사를 표명하자 일본은 7월 23일 경복궁을 불법 점거합니다. 위 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개전 명분을 확보하고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이전까지는 청국을 후원하고 일본을 반대하던 조선 정부는 이제는 일본의 지시를 따르고 청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스기무라 1904, 144)"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여전히 조선 정부가 조선은 중립국이고 청일 양국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외국 사신들에게 불평하자 일본은 8월 26일 한일양국맹약을 조인하게끔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맹약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훗날 조선이 제기할 수 있는 이론(異論)의 여지를 제거한 것은

물론, 조선은 조약 체결 이후 '중립'이라는 말을 언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 내정개혁을 빌미로 차근차근 청일전쟁 개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조선 내정개혁안은 상당 부분 조선에 대한 멸시의 시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갔지만 내부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고, 1854년 가나가와조약 이후 연달아 체결된 서구 열강들과의 불평등조약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은 소위 정한론(征韓論)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메이지 초기부터 정한론은 계속 존재했으나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펴며 일본에서 보낸 국서를 거부한 서계 사건 이후 그 논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타쿠쇼쿠대학 총장인 와타나베 토시오는 조선 스스로가 화이질서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오랑캐' 일본을 여전히 멸시하고 개국과 근대화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개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합니다(와타나베 2007, 6). 이처럼 정한론은 일본이 중화주의적 화이질서에 도전한 첫 시도로서 붕당정쟁에 찌들어 세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가열된 것입니다.

청일전쟁 시기에 나온 일본인의 조선 여행기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혼마 규스케(本間久介)의 《조선잡기》는 오리엔탈리즘과 일본이 가진 조선에 대한 인식의 특수성을 잘 보여줍니다. 혼마는 조선을 중국에 그 대내외적인 독립성과 자주성이 속박된 나라라고

인식합니다. 또한 그는 조선이 명분과 허례에 집착하여 실리를 추구할 수 없었고, 결국 이는 공공의식을 저해하여 경제발전 역시 이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부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편견을 바탕으로 그려진 조선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무기력하고 부패한 조선을 구해야 한다는 문명화의 책무를 혼다는 일본의 '사명'으로 규정합니다(김대래 외 2014, 66).

무츠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4년 7월 23일 사변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대원군을 앞세워 경복궁을 불법 점거하고 정부를 전복시킨 후 군국기무처를 수립했습니다. 대원군은 이후 온건 점진주의자들인 김홍집, 어윤중 등 원로들로 내각을 조직했고, 소위 개혁파 혹은 일본당이라고 불리우던 일파를 군국기무처의 의원으로 영입함으로써 개혁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군국기무처 설립 이후 대원군과 조선내각 각료들이 평양에 주재하는 청나라 장교들에게 비밀스럽게 돈을 주거나 밀서를 교환하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무츠는 불쾌감을 내비치며 조선 내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조선인의 게으름과 무지몽매함 등 야만적인 덕목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무네미츠 1896, 159).

2) 두 번째 명분: 천진조약(天津條約)

《건건록》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이 청일전쟁의 명분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관리의 폭리와 외세의 수탈에 맞선 조선 농민들의 봉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농민들이 전라도 고부의 관아를 점령한 것을 계기로 봉기의 불씨는 이웃 마을까지 번져, 3월 하순에는 농민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정에서 진압군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윽고 전라도 전주가 농민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조정은 외세인 청나라에게 출병을 요청하였고, 청나라는 1894년 6월 6일, 2800명의 군대를 아산만에 주둔시킵니다. 이에 무츠는 1885년 조선에서의 청일 세력균형을 위해 맺었던 천진조약에 의거하여 조선 정부가 스스로 국내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역시 병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빌미로 6월 9일 8000명의 군대를 제물포항에 상륙시킵니다. 천진조약 외에도 제물포조약 상의 권리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의 크기나 움직임에 관해서는 청나라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군 8000명이 조선에 주둔한 이상, 무츠는 이 군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철수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일본이 먼저 군사를 철수시키면 이홍장이 의도했던 바와 같이 한반도에 주둔한 청나라 군대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와타나베 2007, 11). 여기에서 무츠가 떠올린 것이 '조선에 관한 일청 공동내정개혁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무츠는 청나라가 이에 반대할 경우 일본이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난 또한 면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한 것입니다.

무츠가 이야기하는 서구적 신(新)문명을 대표하는 일본과 동아적 구(舊)문명을 대표하는 중국의 대립(무네미츠 1896, 65-66)은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일본의 열망과 현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일본이 빠르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룩한 반면, 중국의 경우 그렇지 못하여 청일 간 국력 격차는 점점 좁혀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을 거치며 중국의 국력이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 비해 일본의 국력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청일전쟁 직전에 급격히 증강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제조업에서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1860년에는 약 17%의 차이를 보이다가 1880년에는 그 차이가 약 10%로 줄어들었고, 청일전쟁 종전 5년 후인 1900년에는 그 차이가 불과 3.8%에 그쳤습니다(강성학 2006, 117). 즉, 일본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일련의 청일 간 충돌을 거치며 중국이 조청 군신관계나 중화질서라는 현실적인 명분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집중적으로 군력을 증강한 것입니다. 둘째, '서구적 신문명'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한 꿈을 가졌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의 조선 독립을 강조한 이유는 자신의 꿈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토가 인접하고 국력이 엇비슷해진 청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날이 갈수록 양국 간의 증오와 질투가 심해져서, (중략) 겉으로는 다툴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화가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무네미츠 1896, 65)” 되었습니다. 무츠 역시 청일전쟁은 “처음부터 조선의 내란을 계기로 서로의 세력을 그 나라에 뻗치게 하여 자신들의 공명심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비롯됐던 것(무네미츠 1896, 65-66)”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일본이 제안했던 조선에서의 공동위원 설치문제를 청나라가 결정한 것은 양국 간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각오한 상태에서 행했던 것이며, 또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일이라서 어떻게 피할 방도가 없었다(무네미츠 1896, 65-66)”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일전쟁과 일본의 조야

무츠는 청일전쟁 당시 이른바 제 2 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외무대신으로 근대 일본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지만, 한국 근대사에서는 일제 침략외교의 첨병으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교 기밀이 담겨 있는 귀중한 역사적 사료인 《건건록》은 일본뿐만 아니라 격동기의 19 세기 말 동아시아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츠는 《건건록》의 전반에 걸쳐 몇 번이고 형세가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과정에서도 결국 일청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일청 양국의

외교관계를 일변할 수 있었던 데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무츠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자부심만이 아닌, 그 당시 일본인들의 대외 인식의 변화와 청일전쟁을 통해 강화된 민족우월의식도 함께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건건록》뿐만 아니라 일본 지식인들이 집필한 당대의 사료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외 인식과 그에 기초한 외교 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 평양 및 황해 전투에서의 전승 결과

무츠는 메이지 27년인 1894년 9월 15일 일본군과 청군이 치른 두 번째 주요 전투였던 평양과 황해 전투에서의 승전보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평양 및 황해 전투에서 일본군이 연전연승을 하며 한반도 내 모든 청군 세력이 소멸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외 정세에 막대하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양 및 황해에서의 대전이 있기 전까지 구미 열강들 중 대부분은 청일 간 충돌이 결국에는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연승을 계기로 구미 열강들의 생각과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천진조약을 어기고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일본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던 구미 열강들이 돌연 일본의 승리에 대한 놀라움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무츠는 그동안 구미 각국은 일본이 유럽의 제도를 모방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조소를 날렸지만 위 전투를

계기로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서술합니다(무네미츠 1896, 177).

이후 영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러시아의 남부진공을 막기 위해 일본 내에 분산되어 있던 영국 조계지를 폐지하고 5 년 후 치외법권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일영통상항해조약(1894)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서구 열강들은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즉, 청일전쟁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능가하여 기존의 지정학적 전통을 뒤엎는 동시에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 청일전쟁은 일본자본주의 발판이었다. 그 후 청나라는 외채를 차용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식민지화가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거액의 배상금을 얻어 일면으로 군비를 확충시키는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일면으로는 금본위제를 채용한 자금을 얻었다. 즉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시장의 통행증을 얻었다. 일본자본주의는 지리상에서 중국과 가까운 조건과 비교적 많은 조계지를 이용하여 구라파 열강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을 취득하였으며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여정에 들어섰다(세이자부로 1980, 293).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 국내 형세 역시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평양 및 황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득실에 관하여 일본 내 국론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전보를 접한

이후 모두가 일본이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욱일승천하는 군대가 언제쯤에나 북경성문에 진입할까 하는 문제만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무츠는 이에 덧붙여 “마음이 들떠 의욕과 탐욕이 앞서게 되고 광란과 교만함이 팽배해져서 국민들은 어디서나 고성방가를 지르는 등 충만감에 도취되어 (중략) 오직 진군하라는 말 외엔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무네미츠 1896, 179)”고 언급합니다.

2) 청일전쟁과 일본인의 의식 변화

일본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대외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제국주의 노선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침략전쟁을 통한 국력 확장의 욕망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구미 열강이 그들의 아시아 식민정책에 있어 일본의 세력 확장이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면 구미는 일본의 행동을 강력히 제한하고 규범화시킬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 전략은 필연적으로 구미에 대해 협조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서구열강 사이에 불평등 조약이 존재하고 다른 일면으로 일본은 동아시아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불평등 조약을 접수하게끔 강요”함으로써 “압박자와 피압박자 두 가지 국가캐스트의 병존(정의 2014, 293)”은 일본으로 하여금 특이한 국가 성격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제국주의의 완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문명개화자의 역할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며 처음으로 '비서구 강대·제국국가'로 급부상함으로써 일본 사회 전반은 강력한 우월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는 청일전쟁 이후 이어진 일본의 대외전쟁을 일컬어 문명이야만에 대해 치른 '성전'(聖戰)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국주의 정서와 애국심이 자극됨에 따라 일본 내 지식인들 역시 중화문화에 대한 숭배와 존중, 종속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멸시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민본주의자 요시노 사쿠조는 《청일전쟁 후의 중국관》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전쟁을 시작하고 보니 중국은 예상외로 유약하였다. 일본은 열강의 환사(幻視)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리하여 쉽게 의외의 대첩을 거두었다. 이는 일본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막대한 기쁨이고 복이었다. 또한 일본인의 자부심을 크게 자극시켜 옛날과 다른 이웃나라와 우방(友邦)을 경멸시하는 비극의 붐을 일으켰다. (중략) 특히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일본이 전쟁에서 국민의 적개심을 고무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징응저미노'(懲膺豬尾奴)라는 노래를 널리 보급시켰다. 이는 마치 한 첩의 과량(過量)한 맹약(猛藥)처럼 중국을 멸시하는 풍조를 격렬하게 유행시켰다(사쿠조 1976, 41).

즉, 청일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본은 중국이 더 이상 자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중국 및 조선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숭배해 마땅한 '선진대국'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광 후의 절뚝거림

'절뚝발이 건(蹇)'이 쓰인 《건건록》이라는 제목은 '절뚝거림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저는 《건건록》을 통해 무츠가 웅변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고민해 보았고, 그 결과 이 집필서를 청일전쟁 종전 후 무츠가 속죄를 하기 위해 쓴 회고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절뚝거리고 절뚝거리면서도 자신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비록 삼국간섭은 피할 수 없었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기변호를 하기 위해 이렇듯 길고 자세한 전쟁 외교 비망록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무츠는 당시 외상으로서 서구 열강들이 일청 간의 전황에 대해 간섭해올 것이며 또한 일본은 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청나라에 대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국간섭으로 인한 일본의 굴복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군인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요동반도의 할양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자 일본 내

여론은 “전쟁에는 이겼는데 외교에서 실패했다면서 정부의 외교정책을 사방에서 고함치며 비난(무네미츠 1896, 351)”했습니다. 무츠는 청일전쟁이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몇 천 년간의 질서를 끝낸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평가가 절하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 정부 입장에서는 실로 어려운 내외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사태의 완급과 경중을 따져 언제나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고, 가볍고 느슨한 일은 뒤로 돌려 처리하려 했으며, 또 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될수록 이를 융화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어려운 일은 되도록 이를 제한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화근이 발생하는 것을 하루라도 늦추려는 것이 외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무네미츠 1896, 355).

따라서 그가 회고하는 청일전쟁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눈엣가시였던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이 연달아 전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 의한 삼국간섭으로 일청강화조약에서 얻어낸 대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츠 입장에서 청일전쟁은 이기고도 진 전쟁으로서 상처뿐인 영광을 안겨 준 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의 기억과 함의

189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과 청나라는 한반도와 남만주를 주 무대로 삼아 전쟁을 치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동아시아 삼국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대규모 전쟁은 청일전쟁이 최초였다는 점에서 위 전쟁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물어가는 전통적 질서의 중심이었던 청나라와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각축을 벌이던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해체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당시 일본이 가졌던 국제정세 인식 및 세계관은 어떠했는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들은 정치적·군사적 외압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상호 연대와 대립을 반복하며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역시 외압에 대응하며 열강과의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국권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은 전쟁의 주체가 아니었던 조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선에 피해를 주었고 종국에는 그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의 불안한 동북아 정세는 청일전쟁 당시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은 중국의 군사대국화,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경쟁들 속에서 우리는 청일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함으로써 지난 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더 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문헌

김대래·박희정·미야키케이나. 2014. “개항기 일본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인식: 혼마 규스케의 <조선잡기>를 중심으로.” 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93.

양정현. 2014. “청일전쟁에 대한 한·일의 기억과 전승.”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46: 113-134.

정의. 2014. “근대 일본의 서구숭배와 국수주의: 메이지(明治)유신부터 청일전쟁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사상학회 일본사상> 27: 277-301.

조한승. 1997. “상대적 국력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일전쟁(1894~95).”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강성학 편. 서울: 리북.

信夫淸三郎. 1980. 天津社會科學院日本問題研究所譯 《日本外交史 1853—1972》上册. 商務印書館.

陸奥宗光. 김승일 역. 1993. 《건건록》. 서울: 범우사.

杉村濬. 한상일 역. 1993. 《在韓苦心錄》. 건국대학교출판부.

戚其章. 2005. 《甲午战争史》. 上海人民出版社. 第1版.

渡利夫. 2007. 《極東アジア地政学と陸奥宗光 －「蹇蹇録」を読む》.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7,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강화도 조약”.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5722&cid=46623&categoryId=46623(검색일: 2015. 06. 22).

9 장

동아시아의 진정한 공진을 꿈꾸며
_규슈 국립박물관

박소영
와세다대학교

변화하는 아태지역의 세력 판도, 그리고 규슈 국립박물관

▲규슈 국립박물관의 입구

규슈 국립박물관은 도쿄, 교토, 나라를 잇는 일본의 네번째 국립박물관으로, 2005 년 후쿠오카현의 다이자후시에 개관하였습니다.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다'가 컨셉인 이 박물관은 과연 일본을, 일본문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규슈 국립박물관에서 사랑방 5 기가 중점적으로 돌아본 곳은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이라는 테마 아래 구석기 시대부터 근세까지의 문화재를 보여주고 있는 '문화교류전시실'입니다. 일본과 여러 다른 나라의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나뉜 5 개의 구역에 대한 안내도는 마치 일본의 시각에서 그린 각 시대별 세계의 세력판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안내도를 보면 '둥글어진 지구, 다가오는 서양'이라는 테마로 일본과 서양 간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구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미일동맹에 치우친 아베 수상의 대외정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30 년이 지난 후에도 규슈 국립박물관이 만들어 낸 문화교류전시실의 안내도는 여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규슈 국립박물관이 일정상 가장 마지막 답사지였던 것에 다행스러움을 느낍니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18 세기 말부터 19, 20 세기에 걸쳐 겪었던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앞선 답사지였던 글로버 가든, 데지마, 그리고 원폭자료관 등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선 답사지 발제 성격과는 다르게앞으로의 일본 및 동아시아, 그리고 아태지역이 겪을 세력변화—명백히 말하자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 차 세계대전 이래 70 년 동안 아태지역 내 세력판도는 미국의 절대적 군사 우위 아래 큰 변화 없이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2 차 세계대전 때 그려져 큰 수정 없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권력지도를 계속

고집해야만 할까요?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국가들은 지금과 같은 지도를 5 년, 10 년 후에도 보고 있게 될까요? 제가 해석하는 아베는 적어도 그 대답에 '그렇다고,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아베 수상은 2012 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일명 '적극적 평화주의'를 일본의 대외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아베 수상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eace)라는 개념은 보통 국제정치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갈퉁(Galtung)이 평화연구에서 사용한 개념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인간의 잠재적 능력이 억압되는 경우, 그러한 구조적 권력을 개혁하는 것까지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한층 더 강화된 미일동맹과 필연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촉진시키는 미일안보협력 강화(New Defense Cooperation)를 통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Chanlett-Avery et al., 2014). 이러한 아베 수상의 대외적인 안보정책의 행보가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일본이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하여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시진핑은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关系)"로 정의를 내리며, 1) 미국과의 정면충돌은 최대한 피하되, 2) 미국 외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는 영토 및 자원(territorial sovereignty and resource claims)등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유소작위(有所作爲, 해야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Xi 2012). 이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숨어서 빛을 키운다),' 즉, 현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조용하고도 조심스럽

게 발전을 꾀하던 노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Swaine2014). 이렇게 '변화된' 중국에게 일본이 보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그널은 20-30 년 전 일본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더욱 퇴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5 년 4 월 29 일 미국의회에서 발표된 "Toward an Alliance of Hope"라는 연설에서 아베 수상은 철저히 미국식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1980 년대 이후 고수해온 "a Member of the West"로 대변되는 서양 혹은 미국 중심의 대외정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합니다(Abe 20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1983).

아베, 그리고 일본이 던지는 변화하는 지도를 향한 메시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잠재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중국의 표현을 따르자면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해당하는—중일관계에서 철저한 대립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메시지는 불행히도 정확히 중국에게 전해진 듯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대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는 중국에게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향한 적극적 행보는 미일동맹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공격적인 액션으로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이 일본을 다시금 침략주의적 동기를 감추고 있는 신뢰 불가능한 국가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한국의 시각도, 그 거부감의 정도가 심하면 심했지 중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0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아태지역의 세력판도가 바뀌고 있는 시기이니 만큼,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양자택일의 태도는 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고 복합적으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중국그리고 미국

아태지역뿐만 아닌 세계 질서에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대부분의 국제정치적 사안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편가르기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핵심 이익을 놓고—예를 들면,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분쟁과 같은—정면 충돌을 할 위험성이 높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아태지역의 세력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만을 조명해도 국제정치의 상당부분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것이 강대국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겨루기의 당사자가 아닌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에 편승할지 도박을 하듯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어떠한 양상으로 아태지역에서 미중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태도야말로 21 세기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이 아베 수상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입니다. 19-20 세기에 걸쳐 겪었던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태지역의 질서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도 아시아 국가들을 수동적인 역할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지난 50 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근대의 상처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직접적 이익이 걸려있는 '아태지역 신 질서의 건축'이란 과제를 더 이상 과거처럼 강대국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실질적 리더십을 제 3 자에게 양도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중관계의 형세가 아태지역 신질서 건축의 결정적 요인이라고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 기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면서 아태지역은 끊임없이 패권 세력의 각축장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아태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이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소련 가운데 양자택일하여 줄서기 바빴던 냉전시대의 구시대적 안보관을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21 세기에 적합한 구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 카네기 국제 평화연구소(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예전과 같이 독점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 또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의 국가 교섭력을 증진시키고자 적극적 리더십을 모색하는 것이지 아태지역 내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Swaine 2015a). 즉, 양국 모두 아태지역에서의 직접적 군사경쟁은 큰 소모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 쇠퇴를 겪고 있는 미국과 경제적 급부상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함께 떠안게 된 중국 모두에게 미중 간 군사 경쟁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베의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태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이 더욱더 탄식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은 최근 미 외교 학술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를 통해 미일동맹의

아태지역 안정화에 대한 핵심적 기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미일동맹이 아태지역의 분쟁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베 수상이 지금과 같이 중국과 한국의 공감 및 이해를 구하지 않는 대외정책을 계속 펴 나간다면, 이웃 국가들은 미일동맹을 일본의 군사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라고 인식하여 견제와 불신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아태지역 내 안보불안의 씨앗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 혹은 미국 뒤 줄서기 경쟁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중관계를 적대적인 경쟁관계로 치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아태지역의 신(新)지도

미중관계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중국의 급부상과 맞물린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세력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패권다툼, 그로 인한 갈등영역—남중국해 분쟁과 같은—이외에도 환경, 문화, 과학기술 등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 또한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중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그려질 아태지역의 세력지도를 완성하는데 있어 미국, 중국뿐만이 아닌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1)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더이상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2) 구시대의 세력지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3)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아닌 “균형력"(power of balance)이 지배하는 안보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태지역 세력판도의 변화에 상응하는 미래 구상이며, 이러한 상상력이 공유될 때 아태지역은 힘의 각축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70 년 동안 미국의 독점적 군사우위 아래 유지되어 오던 아태지역의 세력질서는 평화로운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과 같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필연적인 세력변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력의 부상으로 인해 언제든 패권다툼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아태지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끊임없는 분쟁의 공간이 아닌,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바닷길로 거듭나야

첫 답사지인 글로버 가든부터 규슈 국립박물관까지,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일본의 시각에서 그린 세력지도였습니다. 사실 규슈 답사를 앞두고 개운치 않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 월 ‘그래서 나는 어떤 국제정치학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사랑방이라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문화교류전시실 입구 "바닷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

루소와 마키아벨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 꽃피우게 되는 구미 국제정치학을 거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고민 및 고찰과 함께 어느덧 13 주간의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랑방을 시작하며 동주 이용희 선생님 및 하영선 교수님께서 던지셨던 '한반도의 우리들이 해야 할 국제정치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색함에 있어서 규슈 답사가 과연 어떠한 앎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또한 규슈 국립박물관이란 공간에서 제가 맡은 '아베 수상의 21 세기 구상'이란 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지 막막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답사가 끝난 지금도 저는 고민의 연장선 상에 서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영선 교수님께서 왜 한국의 국제

정치학과 아태지역의 미래를 일본의 남단인 규슈 지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베 수상의 대외정책은 한국, 일본뿐만이 아닌 중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그리는 지역의 세력 판도는 아태지역의 변화하는 힘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요소 중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국제정치학의 한 면을 일본 규슈에서 조명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 다른 답사지였던 나가사키의 원폭자료관은 들어서자마자 다른 무엇도 아닌 우라카미 성당의 참상부터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신 교수님께서는 "과연 21 세기인 지금, 아베가 다시 원폭관련 박물관을 짓는다면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보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 마찬가지로 성당의 천사상 얼굴일까?"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어떤 국제정치를 해왔는지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요. 마찬가지로 규슈 국립박물관을 돌아보며 일본이 가진 현재의 세계관과 그 세계 속의 일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기했던 '20-30 년 후 규슈 국립박물관의 문화교류전시실 안내도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같은 모습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본은 "둥글어진 지구, 다가오는 서양"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신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이제는 '아시아 같지 않은, 서양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감을 얻는, 아시아와 서양을 잇는 진정한 평화의 바닷길로 거듭나 아태지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구축에 앞장서길 기대해봅니다. ■

참고문헌

Abe, Shinzo. 2015. "Toward an Alliance of Hope." AddresstoaJointMeetingoftheU.S.Congress.April29.

Chanlett-Avery, Emma, Mark E. Manyin, Ian E. Rinehart, Rebecca M. Nelson and Brock R. Williams.. 2014.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February 28. Accessed June 11, 2015. http://www.fas.org/sgp/crs/row/RL33436.pdf

"Diplomatic Bluebook." 1983.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Japan's Foreign Relation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Accessed June 9, 2015. http://www.mofa.go.jp/policy/other/bluebook/1983/1983-contents.htm

Swaine, Michael.2014. "Chinese Views on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44:2-27.

_____. 2015a. "Averting a Deepening U.S.-China Rift Over the South China Se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2.

_____.2015b. "The Real Challenge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May/June)

Xi, Jinping. 2012. "Speech at th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and US-China business council luncheon." Washington, D.C., February.

20 世紀を振り返り 21 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21 世紀構想懇談会」).Accessed June 09, 2015. http://www.kantei.go.jp/jp/97_abe/actions/201502/25_21c_koso.html

부록

- **EAI** 사랑방 **2015**년 **1**학기 프로그램
- **EAI** 후원회원

"현대 세계정치 바로 보기"

1주 근대유럽과 국제정치사상

2주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정치학의 탄생

3주 냉전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4주 연구계획서 발표

5주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1: 역사 vs 과학

6주 데탕트와 패러다임 논쟁

7주 신냉전/탈냉전과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8주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2: 실증주의 vs 탈실증주의

9주 복합화와 구성주의

10주 복합화와 세계역사사회학

11주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12주 한국의 국제정치학

13주 세미나 마무리

14주 현장답사

사랑방의 젊은그들 규슈를 품다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강명훈
강은모
강찬수
강현욱
고병희
고승연
고혜선
공성원
공정문
공창위
구상환
구윤정
구준서
권세린
김가현
김건민
김경순
김경지
김광덕
김국형
김기정
김기준
김남희
김대영
김동건
김동호
김만호
김민규
김병국
김병표
김병희
김봉하
김상래
김수진
김승빈
김시연
김영구
김영섭
김영원
김용규
김용남
김 원
김유상
김유주
김은선
김은영
김재두
김 정
김정섭
김정온
김정은
김정하
김 준
김지윤
김지태
김 진
김진영
김진혁
김창수
김태균
김한기
김현성
김현전
김형운
김형찬
김희정
김희진
남윤호
노봉일
노호식
노환길
류재희
명정모
민선식
민선영
박근아
박미영
박사라수현
박상민
박상용
박석원
박선정
박성만
박수진
박연호
박영택
박용준
박장호
박재시
박정섭
박진원
박찬근
박찬희
박창완
박형민
배기욱
배위섭
백송현
백혜영
서은숙
서정원
서희정
선승훈
성정은
손대현
손재키
송기춘
송우엽
송지연
신동원
신명철
신보희
신상화
신성수
신성호
신영준
신영환
신준희
안용찬
안정구
안중익
안현정
안현호
양호실
엄찬섭
여동찬
여현정
우미경
원종숙
유승훈
유재승
유정석
유지영
유창수
육은경
윤병석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윤영두
윤용집
윤우성
윤재훈
윤정림
윤정선
윤창민
윤혜성
이근우
이기호
이내영
이동훈
이미혜
이민교
이범주
이봉재
이상원
이상훈
이서현
이선주
이선희
이성량
이소민
이숙종
이승훈
이시연
이신화
이여희
이영석
이영주
이원종
이인옥
이재섭
이정은
이정호
이정희
이종진
이종호
이주연
이주연
이중구
이지원
이지희
이창원
이 항
이해완
이현옥
이현희
이호준
이홍구
이홍재
이희정
임지순
임현모
임현진
임홍재
장동우
장세린
장세형
장재훈
장준혁
장진호
장희진
전경수
전명선
전혜진
정기용
정랑호
정병갑
정석희
정영진
정용화
정원칠
정윤석
정윤호
정재관
정주연
정진영
정해일
정현윤
정현주
정현철
조규남
조규완
조동현
조은희
조현선
주영아
지혜리
진선희
진재욱
차국린
차동민
채규민
채규호
최 건
최규남
최동규
최병규
최복대
최종호
최준원
최철원
하형일
한금현
한상철
한숙현
한승혜
한일봉
한정원
한지현
허세홍
홍성우
홍성원
홍호영
황 수
황정원
황준호
W1°